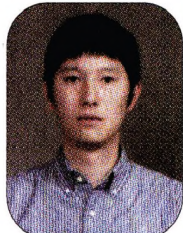


## 제42대 총학에 '슈퍼스타' 팀 당선 회장 정현철 부회장 강혁진... 50.4% 지지

총학생회 회장



정현철(전기4)

총학생회 부회장



강혁진(지구해양3)

될 수 있도록 밑에서부터 노력하는 학생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총학생회 선거 결과에 따른 각 단과대별 투표율과 '슈퍼스타' 지지율이다. ▲인문대 △투표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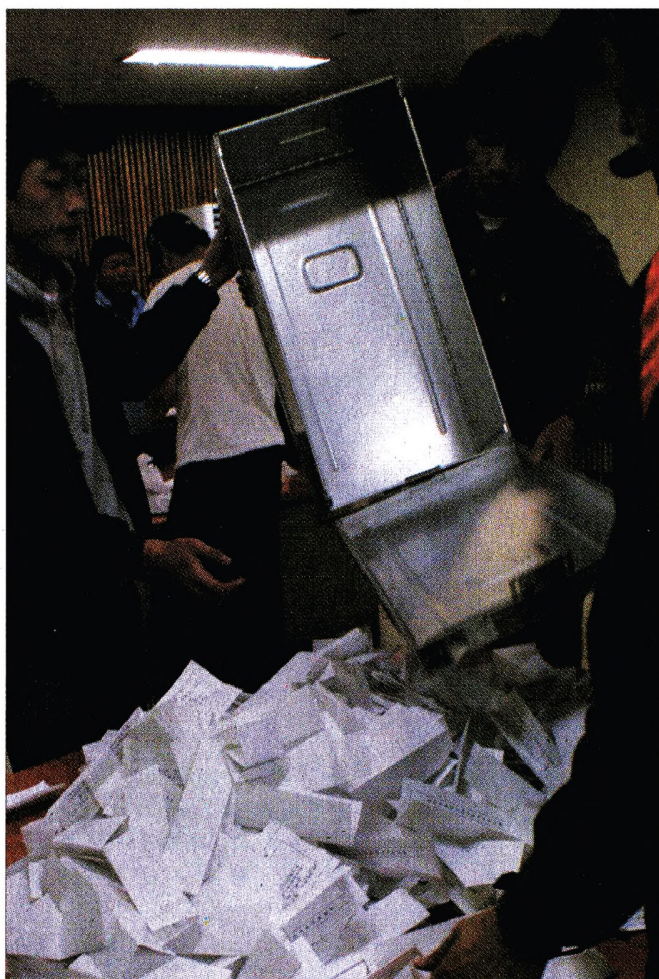
'슈퍼스타' 정·정현철(전기공학 4) 부·강혁진(지구해양과 학 3)학생이 2010학년도 제42대 총학생회 선거에서 회장과 부회장으로 각각 당선됐다.

17일에 치러진 이번 선거에는 전체 유권자 8%63명 중 673명이 참여해 75.10%의 투표율을 보였다. 지난해 69.73% 보다 높은 투표율이었다.

총학생회 선거 마감결과 '슈퍼스타'는 50.39%의 지지율을 얻어 총 3392표를 획득, '아라드립'의 총 3207표, 47.64%의 지지율에 앞서 185표 차이로 당선됐다. 이날 무효표는 132표(1.96%)로 집계됐다.

정현철 총학생회장 당선자는 "일반 학우 모두가 슈퍼스타가

=68.95% △지지율=51.15% ▲경상대 △투표율=68.9% △지지율=48.53% ▲법정대 △투표율=75.35% △지지율=46.24% ▲사범대 △투표율=76.9% △지지율=40.33% ▲생명대 △투표율=81.28% △지지율=26.56% ▲해양대 △투표율=78.11% △지지율=54.82% ▲공과대 △투표율=84.71% △지지율=70.02% ▲자연대 △투표율=81.55% △지지율=36.33% ▲의과대 △투표율=64.59% △지지율=67.41% ▲수의대 △투표율=88.81% △지지율=71.85% ▲야간강좌부 △투표율=52.35% △지지율=53.29% ▲예술학부 △투표율=79.79% △지지율=40.84% 강보배 기자



18일 오전 3시께 백두관 사정각실에서 중앙운영위원회 임원들이 총학생회 선거 투표함을 열고 있다.

## 생활관 운영에 학생참여 보장을 사생자치위 결성이 우선... 관련 규정 바뀌야

학생생활관 운영과 예산편성에 정작 생활관 학생들이 참여할 방법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생활관생들이 입사하면서 내는 생활관비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공개가 되지 않음과 동시에 생활관비의 인상·인하 여부에도 의견을 제시할 방법은 없는 상황이다.

현재 생활관 입사생에게는 입주비와 관리비, 식비를 내야 할 의무가 주어지고 있지만, 그 비용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알 방법이 없다. 생활관 규정에 따르면 생활관 운영의 기본 계획과 규정·제정에 관한 사항은 생활관 운영위원회가 맡고 있다. 운영위는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며, 입주학생의 생활관비에 관한 사항도 결정한다.

그러나 운영위원회 구성은 학

생생활관장, 학생복지과장 등과 생활관장의 추천에 의한 전임교원 중의 위원을 포함하도록 명시돼 있을 뿐, 학생 참여를 의무화하지는 않는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편성에 의하면 현재 학생들이 내는 생활관비 전액은 입사비와 관리비를 합쳐 7억1495만7천원이며, 식비는 총 12억1223만1000원이다. 그러나 학생들이 생활관비를 내고 난 뒤,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궁금할 경우에도 사용 내역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기숙사에 생활하고 있는 모씨는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생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라도, 학생들이 궁금해 하는 관리비와 식비의 사용내역이 공개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현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들의 입장을 제시할 사생자치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 스스로 자치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다.

또한 사생자치위원회가 만들어진다고 해도, 생활관 규정에 의한 학생자치위에는 학생대표들이 기숙사 운영 등에 관한 참여가 명시돼 있지 않아 허울뿐인 사생자치위원회가 되지는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김태환 학생생활관계장은 "자치위원회가 만들어진다면 다양한 학생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들을 수 있을 것"이라며 "학생 복지 위한 예산 지급 등에 대해서도 앞으로 대화를 통해 풀어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중건 기자

## 인천대·한국교원대·순천향대와 학술교류협정 학점·학생교환·시설이용 등

제주대가 지난 10일 인천대(총장 안경수)를 비롯해 한국교원대(총장 권재술), 순천향대(총장 손봉삼)와 각각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했다.

지난 10일 인천대와의 협정에서 양 대학은 교육, 연구, 강의 등 학술활동을 통한 상호간 교류·협력에 합의했다. 앞으로 양 대학은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생 교류시 상호간에 학점을 인정하기로 했다.

또 공동으로 연구 및 학술회의를 진행하며 학술자료, 출판물 및 정보를 교환한다. 이 외에도 각종 기자재나 교육시설을 서로 활용하는 등 대학 간 교육·연구 분야의 발전을 위한 사항들에 협력하기로 했다.



지난 10일 인천대에서 최치규 총장직무대리가 인천대와 학술교류를 체결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9월에는 한국교원대와의 협정을 통해 교직원과 학생의 교류, 생활관 및 주거시설의 상호이용 편의 제공 등을 합의

했다. 한편 지난달 26일에는 순천향대와 교육 및 연구 분야 교류협정 내용을 내용으로 한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했다. 고용희 기자

## 교육혁신프로젝트 전국 최우수 선정 지식경제부 주최 제1회 소프트웨어데이스터

소프트웨어 교육혁신 프로젝트(컴퓨터공학과 변영철 교수)가 지식경제부가 주최한 제1회 공개 소프트웨어 데이스터 전국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지난 5일 서울 상암동 누리꿈스퀘어 비즈타워에서 개최된 제1회 공개 소프트웨어 데이스터에서 전

국 20개의 주요 대학의 SW교육혁신 프로젝트 중 최우수 사례로 선정이 됐다.

이번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소프트웨어 교육혁신 프로젝트는 공개 소프트웨어에 기반을 둔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교육과정에 의한 다양한 교육 및 실습이 이뤄지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프로젝트는 컴퓨터공학과, 컴퓨터교육과, 교육대학 컴퓨터교육전공이 참여해 소프트웨어 개발자 트랙과 교원 양성 트랙을 개발했다. 또 산업연계로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참여해 기업주전형 교육과정으로 개발했다.

특히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공개소프트웨어 교과과정은 현재 관광·레저선도산업 인재양성 사업의 정보시스템 구축 양성을 위한 교과과정으로 활용되고 있어서 기업 맞춤형 인재양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변영철(컴퓨터공학과) 교수는 "2007년부터 실시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에게 보다 좋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강보배 기자

http://www.kbiz.or.kr

Open Your Future!

중소기업은 시련을 끈다

중소기업은 빠르다

중소기업은 젊다

### 꿈이 꿈으로 끝나지 않는 곳 중소기업에서 미래를 열어라!

#### 중소기업은 스포츠카다

전문가정신으로 남들보다 앞서 나가는 작지만 강한 기업, 중소기업 - 작지만 파워 넘치는 스포츠카와 같습니다.

중소기업은 빠르다 중요한 일을 더 빨리, 더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10년 후 시장의 공동 뿔이 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시련을 끈다 일한만큼 눈에 띄기 때문에 능력을 빨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젊다 열정만 있다면 얼마든지 당신의 미래 가능성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당신 가슴 속에 300km의 질주본능이 있다면,  
꿈이 꿈으로 끝나지 않는 곳, 중소기업에서 미래를 여십시오.

Kbiz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청



# 총여 '세이好', 대의원회 '무계중심' 당선

## 동아리연 '하늘높이' 팀... 단대별 학생회장도 선출



총학생회장 전미희(윤리교육3) 대의원회장 강권중(정치외교4) 동아리연합회장 정승용(경영3) 인문대 회장 한성자(국어국문3) 경상대 회장 오경범(경제3) 법정대 회장 정준호(법학2) 사범대 회장 홍용철(윤리교육2) 생명대 회장 김희수(산업응용경제3) 해양대 회장 임홍성(해양생산과학4) 공과대 회장 오승호(전자공학3) 수의과대 회장 윤문수(수의학1) 야간강좌부 회장 조슬기(야 관광경영2)

제주대의 한 해를 이끌어오던 2010학년도 중앙자치기구 및 동아리연합회, 단과대학 학생회장 선거 결과가 발표됐다.

지난 17일 치러진 중앙자치기구 선거에는 총학생회 2팀, 총여학생회 2팀, 대의원회 2팀으로 총 6팀이 후보로 등록했다.

또한 10개 단과대학과 예술학부, 야간강좌부 중 자연과학대학과 예술학부에서는 후보가 나오지 않아 선거가 연기됐다. 의과대학은 지난해와 같이 의학과와 간호학과 학생회장이 공동위원회의서 의과대학을 대표하기로 했다. 공과대학에서는 2팀이 후보로 나와 경선을 치렀으며 야간강좌부와 나머지 7개 단과대학에서는 단독 후보가 출마해 선거에 입했다.

총여학생회 선거결과 총 유권자 3380명 가운데 2985명(76.93%) 투표로 '세이好' 정-전미희(윤리교육 3) 부-문주리(가정관리 2) 후

보가 총 2098표(70.28%)를 획득해 83표(28.01%)를 획득한 '여우공감'을 제치고 당선됐다. 이날 무효표는 51개(1.71%)로 집계됐다. 또 지난 10일 대의원회 선거결과 과대표 213명 중 211명(99.06%)의 높은 참여 아래 '무계중심' 정-강권중(정치외교 4), 부-양지수(영 어교육 3) 후보가 총 120표(56.87%)를 획득해 91표(43.13%)를 획득한 '소리바다'를 따돌리고 당선됐으며 이날 무효표는 나오지 않았다. 지난 12일 동아리연합회 선거에서는 '하늘높이' 정-정승용(경영 3), 부-김지철(전자공학 3) 후보가 총 유권자 376명 가운데 270명(71.8%) 투표로 찬성 243표(90%), 반대 21표(7.8%), 무효 6표(2.2%)를 받아 당선됐다.

다음은 각 단과대학 학생회 선거결과이다.

▲인문대학 '스텐바이' 정-한성자(국어국문 3), 부-강혁(사회

2)후보가 총 유권자 1137명 중 786명(69.13%)이 투표한 결과, 찬성 630표(80.15%), 반대 143표(18.19%), 무효 9표(1.14%)로 당선됐다. ▲경상대학 '자신만만' 정-오경범(경제 3), 부-박지훈(경영정보 3)후보가 총 유권자 1482명 중 1024명(69.10%)이 투표한 결과, 찬성 872표(85.16%), 반대 132표(12.89%), 무효 20표(1.95%)로 당선됐다. ▲법정대학 '레디액션' 정-정준호(법학 2), 부-고영호(정치외교 2)후보가 총 유권자 864명 중 651명(75.35%)이 투표한 결과, 찬성 555표(85.25%), 반대 93표(14.29%), 무효 3표(0.46%)로 당선됐다. ▲사범대학 '처음처럼' 정-홍용철(윤리교육 2), 부-박소정(컴퓨터교육 2)후보가 총 유권자 625명 중 481명(76.9%)이 투표한 결과, 찬성 413표(85.86%), 반대 61표(12.68%), 무효 7표(1.46%)로 당선됐다. ▲생명대학

'히히낙락' 정-김희수(산업응용경제 3), 부-안재형(분자생명공학전공 2)후보가 총 유권자 454명 중 367명(80.84%)이 투표한 결과, 찬성 330표(89.91%), 반대 36표(9.81%), 무효 1표(0.27%)로 당선됐다. ▲해양대학 '황금어장' 정-임홍성(해양생산과학전공 4), 부-강순필(해양생산과학전공 3)후보가 총 유권자 731명 중 571명(78.11%)이 투표한 결과, 찬성 506표(88.61%), 반대 56표(9.80%), 무효 9표(1.57%)로 당선됐다. ▲공과대학 '위풍당당' 정-오승호(전자공학 3), 부-장웅진(컴퓨터공학 3)후보가 총 유권자 1465명 중 1241명(84.71%)이 투표한 결과, 총 613표(49.40%)를 획득해 603표(48.59%)를 획득한 '천하무적'을 따돌리고 당선됐다. 이날 무효표는 25표(2.01%)로 집계됐다. ▲수의과대학 '전진하는' 정-윤문수(수의학 1), 부-황재우(수의학 1)후보가 총 유권자 230명 중 200명(86.96%)이 투표한 결과, 찬성 184표(92.00%), 반대 16표(8.00%)로 당선됐다. ▲의과대학 공동위원회 강민우(의학전문대학원 1)후보가 총 유권자 159명 중 101명(63.52%)이 투표한 결과, 찬성 90표(89.11%), 반대 6표(5.94%), 무효 5표(4.95%)로 당선됐으며, 강여정(간호학) 후보는 총 유권자 121명 중 108명(89.26%)이 투표한 결과, 찬성 96표(88.89%), 반대 12표(11.11%)로 당선됐다. ▲야간강좌부 '온새미로' 정-조슬기(야 관광경영 2), 부-김숙희(야 회계 3)후보가 총 유권자 319명 중 166명(52.04%)이 투표한 결과, 찬성 140표(84.34%), 반대 24표(14.46%), 무효 2표(1.20%)로 당선됐다. 고홍희 기자

# 캠퍼스 '아찔한 오토바이' 골머리

## 관련 규정 만들고 사전 대책 마련해야

학내 오토바이 운행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제한 속도 없이 달리거나 아무 곳에나 주차를 하고 있는 오토바이를 전혀 단속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소음 발생 및 보행자들의 사고 위험 등의 문제가 여전하다.

본지는 지난 2005년 '735호'를 통해 학내 오토바이 운행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오토바이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교양동과 백두관 앞에 오토바이가 주차돼 있어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으며, 심지어는 장애인들이 다니는 경사로를 막아 장애인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

또한 오토바이는 교양동 앞 같이 차량이 다닐 수 없는 곳까지 출입해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기도 한다. 게다가 많은 오토바이가 번호판 없이 다니고 있어 사고가 생겼을 때 신고에 따른 단속 처리가 힘들다.

이는 우리학교에 오토바이에 대한 단속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다보니 일반 차량과 달리 오토바이는 등록을 하지 않아도 학내 출입이 자유로워 불법주차 등 오토바이를 단속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안전을 무시하고 오토바이를 운행하며 무분별하게 과속을 일삼는 등 학생들의 의식도 문제가 되고 있다.

또 음식 등을 배달하는 오토바이까지 무분별하게 학내 도로

를 다니고 있어 교통 혼잡과 소음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총무과의 관계자는 "오토바이로 인한 문제에 대해 해결방법을 고려하고 있다"며 "오토바이는 차에 비해 단속망을 피하기가 쉬운 반면 단속은 인력이 부족해 규제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학생회와 대화를 통해 오토바이 관련 규정이나 학생들의 의식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서울대의 경우 교내 오토바이 방점을 정해 3회 이상 이를 어길시 경고 및 출입제한을 하고 있다. 또 연세대는 오토바이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강보배 기자

# 정시 입시설명회

## 내달 11일까지

2010학년도 정시모집 입시설명회가 제주지역 수험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지난 17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열린다.

이번 입시설명회에서는 정시모집 주요사항 및 제주대 홍보영상을 비롯해 전년도 입시분석 결과 발표, 홍보도우미들의 공연도 이뤄진다. 또한 다음달 11일 학부모 초청 입시설명회도 개최한다.

시내 일반고교 설명회는 고등학생들이 우리학교를 방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설명회는 20일 신성고, 24일 제주일고, 25일 대기고, 27일 중앙고, 30일 애월고, 내달 1일 남녕고, 4일 오현고 순으로 실시한다.

시의 일반고 설명회는 고교를 방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오늘 세화고를 시작으로 23일 서귀포고, 26일 대정고, 다음달 2일 서귀포고(서귀포고의 경우 서귀포 학생문화원), 12월 3일 한림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강보배 기자



지난 6일부터 이틀간 박물관 주최로 체험하는 제주전통 품공예 행사가 제주농촌 마을 송당에서 열렸다.

# 박물관, 제주 품공예행사 가져

박물관(관장 김동진 사학과 교수)이 지난 6일부터 2일간 제주농촌마을 송당에서 체험하는 제주전통 품공예 행사를 실시했다.

2009 문화예술기반시설 연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대학박물관의 전문인력과 시설을 활용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으로 도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행사는 제주 품공예의 역사와 의미를 비롯해 제주의 전통 민구

류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

또 60여년간 품공예의 명맥을 이어온 김영근(74)씨가 우장 초신, 뜰, 명석, 줄조끼 등의 시연을 통해 품공예품의 제작 과정을 보여주었고,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여 품공예품들을 제작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영주고등학교 28명, 제주외국어고등학교 20명 등 총 48명의 학생이 참가했다.

# '취업과 직업의 세계' 계절학기

## 오는 10일부터 수강생 모집

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학생들에게 취업에 관한 마인드를 함양시키기 위해 2009학기 계절학기에

3~4학년 6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강의는 기업 채용패턴에 맞는 입사서류 작성법 및 면접 대응 요령을 가르치고 자신감을 고취시키는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신청방법은 직업능력개발원 사무실로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수강신청서 접수 순으로 선발

된다. 또 미 수강신청 학생은 10명 내외로 참여가능하다.

이 강의는 다음달 16일부터 2박 3일로 진행되며 제주한화리조트에서 진행된다. 또 참가비 5000원을 지참하고 참가 전에는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준비해야 한다. 문정화 기자

The 1st Global Jeju Business Convention

# 글로벌 제주상공인, 당신은 제주의 힘입니다.

제주상공회의소는 오는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제1회 글로벌제주상공인대회'를 개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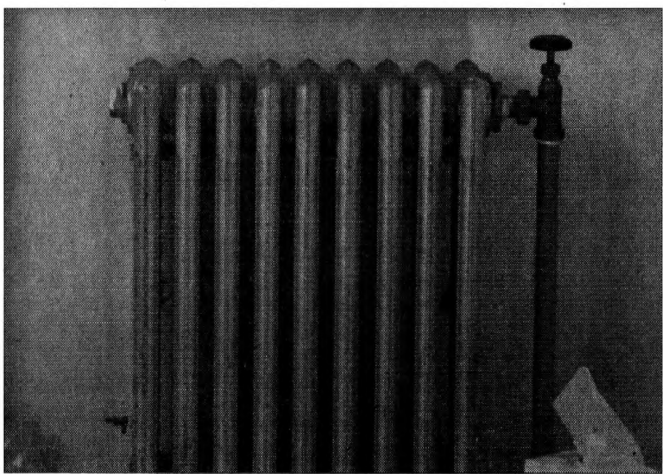
- 기간 : 2009년 11월 27일(금) ~ 11월 29일(일) 3일간
- 장소 : 롯데호텔제주 (중문관광단지 내)
- 주최 : 제주상공회의소
- 주관 : 글로벌제주상공인대회 조직위원회
- 후원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민회총연합회





# “백두관 추위 올해도 걱정”

## 냉·난방 개선 시급히 이뤄져야



백두관 준공때 설치된 라디에이터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학생회관인 백두관에 위치한 학생자치기구와 동아리 소속 학생들은 올 겨울에도 추위 걱정은 계속될 것 같다. 백두관 난방시설은 1993년 준공 때의 시설을 17년간 쓰다 보니 노후해 그동안 겨울엔 추위 불평이 적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각 자치기구 사무실과 동아리방에서는 별도로 겨울에는 전

기스토브를 켜놓아 화재위험을 안고 있다. 현재 라디에이터는 대학부가 정한 시간대에만 중앙집중 난방방식으로 가동하고 있다. 하지만 필요할 때 자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해 불편을 겪고 있다. 더구나 가동 개시 일자나 시간에 대한 안내가 없어 학생들은 사용여부를 정확히 알지 못

하고 있다. 동아리 모 학생은 “라디에이터가 있어도 대학본부에서 일괄적으로 틀어주고 있어 쓰고 싶은 시간에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며 “라디에이터 사용시간을 정확히 알지 못해 자체 온풍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변수철 학생복지과장은 “동아리방내에 온풍기와 전열기의 사용을 자제하는 만큼 라디에이터에 대한 가동시간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시설과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설과 관계자는 “라디에이터는 지난 9일부터 내년 3월 5일까지 작동할 예정으로 근무시간에만 가동한다고 학교계사관과 공고문을 통해 알렸다”면서 “현재 라디에이터는 본부에서 스티프를 보내줘야 하는 중앙집중식이라서 자체 전기로 가동되는 냉난방 시설로 바꿀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정화 기자

# 나비박사 석주명 업적 기린다

## 아열대농업연구소 기념관 건립

나비박사로 널리 알려진 석주명(1908~1950) 선생을 기리기 위해 ‘아열대농업생명과학연구소(소장 김인중 생명공학부 교수)가 기념사업에 나섰다. 석 선생은 평생 동안 나비 7만여 마리를 채집하고 128편에 달하는 나비관련 논문을 발표한 ‘나비박사’다. 제주와는 일제 강점기에 경성제국대학 부속 생약연구소 제주도시험장(현 아열대연구소)에서 근무하며 인연을 맺었다. 석 선생은 1943년부터 2년여 간 이곳에서 근무하며 나비연구와 더불어 제주방언, 문화, 풍습에 이르는 제주학 연구에도 큰 업적을 남겼다. 아열대연구소는 이러한 석 선생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석주명 기념사업을 구제화 한 ‘종합발전계획(2008~2018)’을 내놓았다. 이 계획은 아열대연구소의 연구와 교육기능을 유지하며 기념사업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준비됐다. 노후화

가 심해 연구와 교육 공간으로 사용하기에 부족한 현 아열대연구소 건물을 전반적으로 보수한 후 강의실, 실험실, 사무실 등을 석주명 선생 기념관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기념관에는 석 선생의 일대기를 담은 동영상과 나비 표본 등의 시각 자료를 전시하고, 석 선생이 연구했던 모습과 장소를 복원할 예정이다. 또한 연구소 부지 내에 석 선생의 기념관으로 활용되면 연구와 교육을 위한 공간은 따로 신축할 계획이다. 김인중 소장은 “이번 기념사업은 제주대가 지역사회와 호흡할 수 있는 기회이며 교육과 관광 자원으로 발전 가치가 크다”며 “도 차원의 지원과 더불어 대학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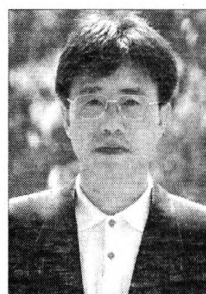
고홍희 기자

# 제주대 뉴스 클리핑

## 김용주 교수, 세계인명 ABI 등재

김용주(물리학과) 교수가 미국 인명기관 ‘ABI’에서 발행하는 세계적인 인명사전 ‘영예로운 미국 메달 수상자 (American Medal of Honor Recipient)’에 등재됐다. 그동안 김 교수는 핵의 구조와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핵의 산란현상에 대한 폭넓은 연구를 진행해 왔다. 그는 현재까지 60편에 달하는 SCI(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급 논문을 발표하며 핵물리학분야에서 연구성과를

성 과를 널리 인정받았다. 김 교수는 “그간 연구를 하며 힘든 적도 많았지만 연구 실적들이 인정을 받아 인명사전에 등재되니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 공학교육센터 전국경제인연합회장상 수상

2009 산학협력 엑스포 창의적 종합설계 경진대회에서 우리대학 공학교육혁신센터가 전국경제인연합회장상을 수상했다. 이날 수상한 작품은 ‘끝선 제어기(ECP) 및 Winding 시스템(지도교수 강진식 통신공학과 교수)’이다.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전시장에서 교육

과학기술부가 주최한 2009 산학협력 엑스포 창의적 종합설계 경진대회에는 총 68개 대학, 203개 작품이 참가했다. 수상작품인 끝선 제어기(ECP) 및 Winding 시스템은 원단과 같은 두루마기 형식으로 보관되는 것들의 끝선을 일정하게 저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 통역대학원, 24일 이창수 교수 특강

이창수 한국외국어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한영과 교수가 24일 오후 3시 의과대학 강당에서 ‘영어전문가가 되는 길’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갖는다. 통역대학원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특강은 이창수 교수의 통역 노하우와 영어공부 방법을 들을 수 있다. 박경란(통역대학원 한영과)교

수는 “이번 강연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영어공부 방법을 되돌아보고 자신에게 맞는 영어공부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창수 교수는 1000일 이상의 국제회의통역 경험을 가지고 있는 통역전문가로서 EBS, 아리랑 TV 등 영어교육 및 영어전문 방송을 진행했다.

## 손석희 교수 27일 초청특강

교수학습지원센터는 재학생과 학내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오는 27일과 30일 ‘2학기 학습법 특강’을 마련한다. 27일 아라뮤즈홀에서는 열리는 ‘우리사회와 토론문화’ 강연은 전 MBC아나운서 손석희 교수를 초청해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효과적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과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여 토론할 수 있는 문화를 형성하는 것에 대해 강의한다. 또한 30일 교양동에서 진행되는 ‘학점관리에도 전략이 따른다’는 고은원 교수학습지원센터 책임연구원이 진행해 기말고사 대비 시험준비와 성적의 신장에 관련해 강의할 예정이다.

# 도서관에 찾는 책이 없다?

## 찢어진 양심들 “책 읽고 아무데나 방치”

법정대학 김모씨는 최근 도서관 대출로 황당한 일을 겪었다. 책을 빌리기 위해 온라인 중앙도서관 홈페이지를 검색한 그는 홈페이지에서 해당 책이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정작 도서관에서는 대출 가능한 책을 찾을 수 없었다. 책이 꽂혀야 할 자리에 책이 없었던 것. 도서관 어딘가에서 다른 학생이 읽고 있다고 생각한 김씨는 일주일 후에 다시 도서관을 찾았지만 여전히 책을 찾을 수 없어 상한 기분만 안고 나왔다. 이처럼 일부 학생들의 이기적인 행태로 대출 가능한 책도 실제로

는 빌리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학생들의 의식개선이 요구된다. 학생들의 피해사례 면면을 보면 학생들이 도서관에서 책을 읽다가 제자리에 꽂지 않아 대출하고자 하는 학생이 책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일부 학생은 의도적으로 자신만이 아는 공간에 책을 숨겨 대출과 반납기간을 피하는 사례도 있다. 이렇다보니 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는 대출이 가능하지만 실제 책을 빌리지 못해 학업에 피해를 받는 학생들이 생겨나고 있다. 김모씨는 “아무리 도서 대출이 중요하다지만 다른 학생을 배려하

지 않는 이기적인 행태는 문제가 있다”며 “학생들이 도서관을 동등하게 쓸 수 있도록 학생들의 의식개선은 물론 학교 측의 대책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도서관 관계자는 “이런 문제 때문에 도서관은 방학 때마다 책을 정리하며 점검한다. 그러나 책은 늘어나지만 인력은 부족해 세부적으로 발견하기가 힘든 상태”라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서관측에서 캠페인을 마련하긴 하나 학생이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의식개선이 우선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도연 기자

# 개교 57주년 기념 동문체육대회

## 우승 수의학과 준우승 법학과



지난 8일 열린 동문하모니체육대회에서 동문들이 풋볼이 게임을 하고 있다.

제9회 동문하모니체육대회가 지난 8일 대운동장과 실내체육관에서 열렸다. 이번 체육대회에는 개교 57주년 및 총동창회 창립 55주년을 맞아 동문들이 함께 단합과 우정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대회에는 최치규 총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동창회 회장단 24명과 귀빈들이 참석

해 자리를 빛냈다. 총 30개의 학과 동문회가 참여한 이번 체육대회에서는 △축구 △여자 승부차기 △계주 △농구가 단종체로 등진 게임이 진행됐다. 대회 종합우승은 수의학과가 차지했으며 종합준우승은 법학과, 3위는 관광경영학과에 돌아갔다.

강보배 기자



# 농업인의 날을 아시나요

## ○...고춧가루가 덩(?)

학생식당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식판에 묻은 고춧가루까지 먹어야 하나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알고 본 즉, 식판이 잘 씻겨 있지 않아 고춧가루 등 음식 찌꺼기가 붙어 있는 식판이 발견되고 있다는 것. 식판을 잘못 고르면 복불복으로 고춧가루까지 덩으로 먹게 돼 밥을 먹으며 온 사람들은 고춧가루를 피해 청결한 식판을 고르는 일이 일쑤. 좋은 음식을 만들어 주기 위해 힘쓰시는 만큼 위생에도 조금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좋을 듯 하오.

○...‘눈먼 감자’ 안되길 바라오  
16일부터 예산집행 및 법안카드 사용실제 등 단위기관에 대한 자체 행정감사에 돌입한 가운데 늦은 감은 있지만 바람직한 조치라는 지적과 함께 이번 만큼은 강도 높은 행정감사가 될 것이라

는 후문.

그도 그렇듯이 종전까지 자체 행정감사를 벌이긴 했지만 한정된 감사요원으로 심층적인 감사를 기대하기 어려웠고, 감사에 따른 일반업무 효율 저하와 교직원들의 사기진작 등을 고려해 온 점이 이번 사태를 불러왔다는 자성론과 함께 대학이미지 쇄신을 위해서는 엄격한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고려.

## ○...농업인의 날을 아시나요?

빼빼로 데이로 막대과자가 오고갔던 11월 11일, 한전에서 외롭게 생일을 자축하던 데이가 있었으니 바로 농업인의 날. 원래 11월 11일은 농업인의 날로 농업의 중요성과 농업인들에게 공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위

해 제정된 날. 하지만 정작 그날은 상업적 상술에 밀려 학내에는 농업인의날은 외면당하고 막대한 과자단 넘쳐났다 하오. 수입개방으로 인해 농업인들의 근심은 깊어만 가는데 11일만이라도 진정 농업인을 위한 ‘날’의 의미를 헤아리는 게 옳다 여겨 한마디.

## ○...119구급차 시급!

학생들이 BTL기숙사 계단을 이동할 때 마다 미끄러질 위험에 처해있어 119구급차가 대기해야 할 정도라는데. 무슨 말이고 하니 학교후문과 연결돼 있는 BTL기숙사는 학생들의 왕래가 잦지만 그 계단의 폭이 좁고 높이가 높아 학생들이 미끄러지기 십상이라는데 겨울철에 계단이라도 얼게되면 큰 사고가 벌어질까 아찔할 정도. 현재 미끄럼방지마가 있어도 유무실한지 오래이니 학생들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할 듯하오.

# 제29회 백록학술상 현상 공모

언론출판센터에서 제주대신문 창간 55주년을 맞이하여 제29회 백록학술상을 다음과 같이 현상 공모하고자 합니다

## 1.행사명 : 제29회 백록학술상

## 2.응모자격 : 제주대학교 재학생(대학원 박사과정은 제외)

3.분 야 : 일반논문 A4용지 10매~30매 내외(인문, 사회, 자연과학, 공학분야: 이미 발표된 논문이나 학위논문 제외)로 작성하고, 논문출력물과 논문파일을 CD로 동시 제출, 제출된 원고는 반환되지 않음.

## 4.시 상 : 학부생/대학원생

(당선작 각 1편 : 총장상 및 상금 50만원, 가작 각 2편 : 총장상 및 상금 30만원)

\*수상인원은 논문 수준에 따라 변동 가능

## 5.심사 및 시상 : 심사위원회에서 추후 결정

## 6.접수마감 : 2009년 12월 7일(월) 18:00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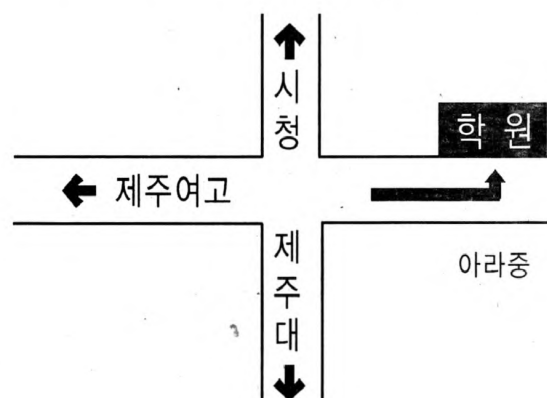
## 7.당선작발표 : 2010년 신년호

# 운 전 면 허

제주대학교 발전 후원 업체

## 한라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

- 매주 운전면허 기능시험 자체 실시
- 셔틀버스 운행: 제주대 → 학원(08:30~17:00)
- 매시 30분 제주대 정문앞 출발
- 주말교육 가능 ○ 필기시험 교재 배부



제주시 아라2동 1320 (제주여고 입구 동쪽)  
전화: 755-9900

제주여고 입구 건너편(다리) ↔  
학원 셔틀버스 운행



## ■ 중앙도서관 실태 점검

## 도서관 열람·자료실 과포화... 신축만이 해법

## 전문 사서역할 없는 도서관 활성화는 '헛구호'

중앙도서관은 대학의 상징이자 중심이다. 다양하고 방대한 정보를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소통하는 커뮤니케이션의 장이다. 뿐만 아니라, 도서관은 대학구성원들의 수요에 맞춘 교수·학습·연구를 지원해야 할 막중한 역할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중앙도서관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물음을 던질 것이다. 연신 발전을 외쳐대는 대학의 정책과는 상반되게 현재 중앙도서관의 발전 상황은 23년째 제자리 쳤바퀴 돌 듯 정체돼 있다.

## 과포화 상태의 도서관 공간

매해 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자와 도서들은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충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설공간과 콘텐츠, 서비스 등은 계속되는 문제로 지적된다.

1986년에 준공된 중앙도서관은 15만권 수준을 적정 수준으로 만들어진 서재와, 당시 학생 수를 대비로 열람실을 마련했다. 그 후, 대학은 늘어나는 수요를 대비해 1999년 제2도서관을 설립하고 의학분관과 법학분관을 만들었지만, 증가하는 대학 구성원과 필요자료들을 수용하기는 역부족이었다.

현재 서적은 80만권 이상으로 6배가량 늘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서적들에 따라, 도서관은 마땅한 대안이 없어 단기적 방법을 내세울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그 한 방편이 서재 간의 간격을 줄이는 것이다. 현재 서가 간의 간격은 평균 0.85m로 대학도서관 시설기준에 관한 연구 논문에서 제시한 1.2m에 훨씬 못미친다. 이는 장애인 휠체어는 접근조차 불가능한 공간이다.

또 이용이 적거나 오래된 서적들은 공간 부족으로 지하저장고로 밀려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도서관 내 개가식으로 공개된 서적은 53만여권이며, 폐가식 서적은 총 27만여권이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이 직접 접할 수 있는 서적에 큰 제한이 따르고 있으며, 폐가식 서적은 홈페이지 검색을 통해서만 찾을 수 있다. 그렇지만, 도서관에서는 이러한 지하저장고도 가까운 시일에 정량을 다해 더 이상 책을 둘 공간 자체가 없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열람실의 문제도 심각하다. 중앙도서관의 열람석은 현재 총 1118석으로 대학

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열람실 확보 기준인 학생 수 대비 20%도 맞추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서관에서는 이러한 기준과 수요를 감안해 1층과 2층 로비에까지 열람좌석을 억지로 마련해 두었다. 1층 로비에는 정보검색실과 사물함, 열람좌석이 어지럽게 설치돼 있으며, 이용자들의 계속되는 이동에 따른 어수선한 분위기로 학습에 집중할 환경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세연(회계 1)씨는 “로비에 위치한 정보검색실을 이용하는데 매우 산만하다”며 “열람실과 정보검색실 등도 로비에 위치할 것이 아니라, 독립된 공간에 마련돼야 이용자들이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열람실 부족의 문제는 시험기간이면 더욱 심해진다. 서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학생들은 친구들끼리 학생증을 빌려 좌석배정기의 여러 자리를 선점해 두기도 한다. 그러나 이렇게 차지한 공간마저도 비좁은 편이라 학습을 진행하기에는 열악한 환경이다.

또 일부 사용자들의 자리독점 행위로 사용자들 간의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개인이 책과 짐들을 둘 곳이 없어 열람좌석을 이용하다 보니 생겨난 문제이다. 이에 따라 이러한 공간 문제 해결을 위해 사물함을 증설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제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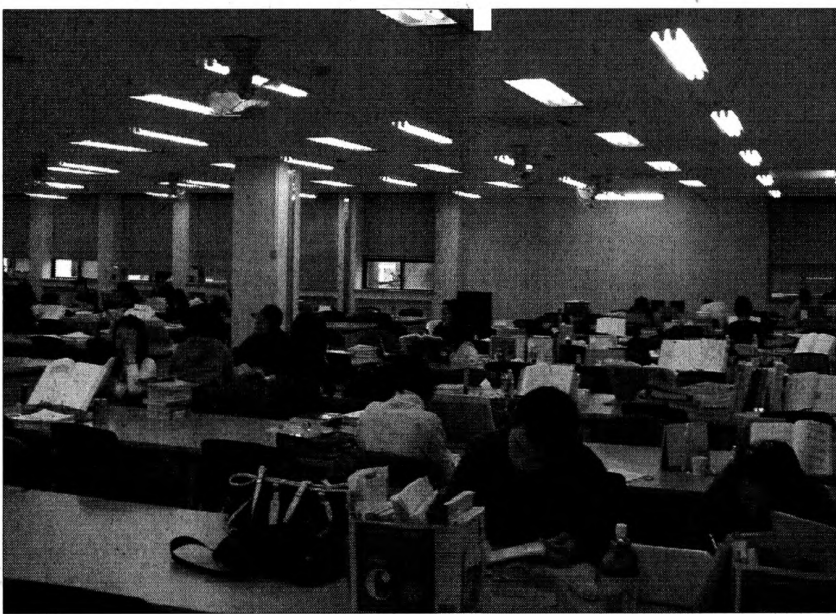
이정민(회계 1)씨는 “사물함을 이용하는데 많은 제한이 따르고 있다”며 “자리독점의 문제도 사물함부족 문제가 해결된다면 어느정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도서관 측은 사물함의 문제도, 공간부족문제도 시도조차 어렵다는 설명이다. 결국은 공간 부족이라는 근본문제가 계속해서 도서관 내의 다양한 문제들을 파생시키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도서관 관계자는 “본래 도서관은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해 나가야 하지만, 현재 공간 부족으로 당연히 제공되어야 할 열람실은 물론 그룹스터디룸, 세미나실조차도 전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 주제별 사서 배치 필요

도서관의 서적 배치도 체계적이지 못하다. 부족한 공간에 따라 책들을 맞춰 배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반해 타 대학의 도서관들은 효율적인 자료제



중앙도서관에서 반복되는 문제들은 도서관의 공간 부족에 따라 계속 파생되고 있다.

공을 위해 학문분야별 자료실을 만들어 가고 있다. 분야별로 배치된 자료실에는 전문사서들이 배치돼 있어, 자료의 특성에 따라 정리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최현(사회학과)교수는 “학생들과 교수들에게 최신자료들을 제시하고, 필요한 정보를 풍부하게 제시할 전문사서들을 두어야 한다”며 “이로써도 부족한 자료는 국내 대학도서관이나 주요도서관들과 연계해 디지털 콘텐츠 등으로 대학구성원들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만들어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분야별 전문 사서는 그림의 떡인 상황이다. 현재 제주대의 사서는 총 15명으로 과거보다 오히려 계속적으로 줄었다. 사서의 부족은 결국 대학 도서관의 자료의 질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계속해서 인원이 감축된다면 사서 본연의 역할을 하기 보다는 단편적으로 책을 구입하고 정리만하는 작업밖에 수행하기 어렵게 된다.

도서관 관계자는 “현재 공간 문제로 서재들의 배치도 마구잡이식으로 돼 있다”며 “주제별 사서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서재 자체를 주제별로 나누고, 그에 따라 적절하게 사서들이 배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도서관에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공간 마련과 기틀이 준비되어야 주제별 사서를 위한 대학 차원의 계획이 세워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주제별 사서에 대한 규정이 사서학이나 규정상으로도 나와 있지 않지만 이를 시행하고자 한다면, 현재 부족한 사서의 인원을

보충하고 공간문제가 선결된 뒤, 주제별 사서들을 양성해 나갈 방법들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 정부와 대학의 관심 절실

이외에도 도서관의 문제는 산적하다. 정보사회에 맞춘 미래지향적인 도서관으로의 변모도 필요하다는 지적과, 지역거점 대학으로서의 향토자료를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보관해야 한다는 역할도 계속해서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계속해서 정체되는 이유는 대학에서 도서관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도서관 관계자는 “현재 도서관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지난 2007년도 장기비전계획을 세워 대안을 제시했다”며 “실천해야 할 방향은 알고 있으나 결국은 예산 문제로 하나도 해결해 나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시대가 변하고 도서관이 추구해야 할 가치도 다양해지고 있다. 정보화 사회와 다양한 콘텐츠 마련, 디지털화, 거점대학으로서의 지역향토 자료 수집 등 역할은 방대하다.

그러나 지금의 중앙도서관은 현재의 수요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대학과 정부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해결에 나서야 할 때이다.

박중건 기자

## 소음공해·정책실종... 구태선거 되풀이

## 학생선거 운동에 신선한 바람 절실



지난 16일 총학생회 선거운동원 학생들이 백두관 앞에서 총선거유세를 하고 있다.

얼마 전까지도 대학 내에서는 총학생회, 총여학생회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이 한창이었다. 더군다나 올해는 학생회선거들이 모두 경선으로 진행돼 지난 선거 때보다 더 열띤 경쟁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선거운동으로 인한 소음, 쓰레기문제로 함께 정책선거 실종 등 학내 선거문화에 대한 학생들과 교수들의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선거운동 기간동안 학내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평소에 보기 힘들었던 ‘90도’ 인사와 함께 ‘OOOO입니다. 좋은 아침되세요’라는 후보자를 홍보하는 구호소리가 힘차게 울려 퍼졌다. 교양동이나 백두관에는 선거 후보자들의 사진과 여러 가지 재밌는 퍼포먼스가 선보여져 학생들의 눈길을 끌었다. 또 산책로마다 후보자들을 알리기 위한 현수막이 내걸리고 홍보물들이 이리저리 뿌려졌다. 또한 오후 5시~6시 사이에는 집으로 돌아가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회후보들이 무리지어 정문길목에서 인사를 하고 구호를 외치는 선거운동이 벌어졌다.

그러나 이를 보는 학생들과 교수들의 시선은 그리 달갑지 않은 않다. 얼마 전 학교 내에서는 현수막걸이를 따로 만들어 어지럽게 걸려진 현수막을 정리한바 있다. 하지만 이를 무색하게 만들만큼 캠퍼스 내에는 다시 어지럽게 후보자들의 현수막들이 마구잡이로 내걸려졌다. 또 길목마다 학생회에서 나눠진 홍보자료들이 쓰레기처럼 나뒹굴고 있어 학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 또한 수업시간에 교수님의 양해 없이 강의실에 들어와 선거운동을 하거나 복도에서 시끄럽게 굴며 구호를 외치고 뛰어다니기까지 해 수업

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들리기도 했다.

법정대 김모 학생은 “교양동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중에 후보들의 구호소리나 노래 부르는 소리가 들려 방해받은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며 “수업이 자꾸 끊겨 교수님도 인상을 찌푸리시고 학생들도 수업 받을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안돼 불만스럽다”고 밝혔다. 또한 의과대 임모 학생은 “후보들이 몰려다니면서 구호를 외치는데 만날 때마다 위압감이 느껴져 부담스럽다”며 “차라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장소와 시간대를 정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지난 2일부터 시작된 선거운동은 학생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유행하는 노랫말과 광고 문구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정책토론회에 대한 홍보는 부족해 일반학생들의 무관심 속에서 지나가 버렸다. 정책토론회로 돌아가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회후보들이 무리지어 정문길목에서 인사를 하고 구호를 외치는 선거운동이 벌어졌다.

교양동에서 강의실을 하고 있는 모강사는 “양해를 구하고 짧은 시간에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복도는 공공장소인 만큼 시끄러운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선거운동이 재미있고 대중성있게 바뀌긴 했지만 정책적인 면을 보여주기에 부족한 것 같다”고 말해 현 선거운동에 대한 아쉬움을 밝혔다. 또 이런 면에서 “정책토론회와 같은 정책 대결의 장을 활성화해 후보들의 정책, 비전능력 등을 일반학생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문정화 기자

## 본부 법인카드 관리에 ‘정신 바짝’

## 월2회 모니터링... 불법 있을시 총무과에 감사의뢰

## 법인카드 관리강화 대책 발표

최근 불거진 제주대 직원의 법인카드 불법 사용 재발을 사전차단하기 위해 법인카드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제주대는 법인카드의 사적인 사용 및 개인카드의 업무상 사용을 금지하고 내부 감시를 이중으로 강화하는 등 법인카드 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으로 본부는 기존 소극적인 관리방향에서 업무상 횡령과 공공 유용 같은 범죄 예방을 위한 적극적 관리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대학 내 법인카드는 현재 각 기관과 부서 운영경비 중 업무추진비 등에 대해 사용하고 있고, 법인카드결제계좌

의 인감을 직인 1개만을 등록 관리함에 따라 업무담당자가 감독자의 통제 없이 해당 계좌에서 입·출금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본부는 이에 따라 우선 법인카드 사적사용 및 개인카드의 업무상 사용을 금지하고 법인카드를 잘못 사용한 경우에는 즉시 신용카드사에 연락하여 이를 취소한 후 소속 부서장에게 사용 경위 등을 밝히고 즉각 대처해야 한다.

또한 각 기관과 부서에서는 출납내역 등을 기재한 법인카드 사용부를 비치하고,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매출전표 서명란에는 소속 부서 및 사용자 실명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본부는 이와 함께 법인카드결제는 전용 결제계좌로만 운용하며, 거래계좌의 도장은 종전 직인만 등록했지만 직인과 부서장 사인을 동시에 등록하도록 보완했다. 아울러 법인카드 이용내역과 계좌 입금액 대조를 위해 5년간 명세서 보관을 해야 하며, 법인카드에 대한 사무인계와 인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했다.

법인카드사용에 대한 내부 감시체계도 강화된다. 학교 예산의 최종 관리부서인 재정과는 대학내 기관 및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한 달에 두차례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상시 감시체제를 가동한다.

이때 불법사행이 발견되면 총무과로 자체 감사 의뢰를 하며, 총무과는 정기적으로 법인카드 사용실태 감사를 벌여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상시 확인할 방침이다.

본부 관계자는 “법인카드를 이용한 불법행위로 인해 우리대학의 명예가 크게 실추된 만큼 이에 대한 엄격한 관리강화 강화가 필요하다”며 “이번 감사를 통해 기관 및 부서의 고질적 병폐나 잘못된 행정을 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위기관 전면 행정감사 착수  
‘예산집행·기강해이 등 시정’

대학 본부가 예산집행과 교직원 기강 해이 등을 시정하기 위해 16일부터 인문대학을 비롯한 단과대학, 대학원, 교육지원시설, 연구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자체 행정감사에 착수했다.



본부는 기존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소극적인 관리방향에서 사전 범죄 예방을 위한 적극적 관리 방향으로 전환했다.

본부는 이에 따라 부영철 총무과장과 김종훈 재정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감사반을 편성, 16일부터 20일까지 1차 감사를 벌이고, 내달 14일부터 19일까지 2차 감사를 벌인다.

본부는 우선 16일부터 인문대학, 대학원, 통영대학원을 시작으로 단과대

학과 교육지원시설, 연구시설, 기타시설에 대해 기관운영감사를 실시, 예산집행 및 법인카드 사용실태, 회계관리 등을 중점점검하고, 교직원 복무 등 주요 업무 실태에 대해 감사를 벌일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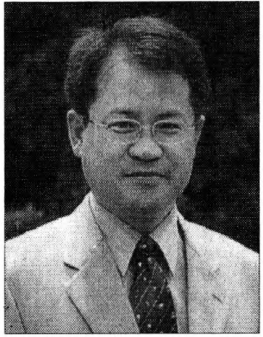
정용복 대기자



## ■ 제주돌담의 존재적 가치

## 역사 물씬 제주 발담을 휴양공간과 관광자원으로

## 경관 가치 663억원 평가... 보존대책 시급



고성보 산업응용경제 교수

제주도에는 화산활동에 의해 만들어진 검은 현무암이 지천으로 널려있어 제주 땅은 ‘돌밭’이라고 부를 정도로 돌이 많이 존재하였고 제주도민들은 농사를 짓기위해 돌을 밭 귀퉁이에 모아 쌓아놓거나 돌무더기를 해쳐 돌담으로 활용하여 왔다.

제주도 돌담은 삼다도(三多島) 제주의 상징으로 현무암 돌담 자체가 빚어내는 경관의 아름다움으로 인해 문화관광부에 의해 잡녀(해녀), 돌하르방과 함께 한국의 100대 민족문화상징으로 선정되었다. 또한, ‘25시’의 작가 게오르규는 제주초가와 돌담에서 영감을 얻기 위해 두차례나 제주를 방문하였고, 70년대 제주를 찾았던 미국의 ‘라이프’지 한 사진기자는 돌담에 대해 ‘바하스에 반짝이는 보석과 같다’고 했다.

최근 들어 제주돌담을 주제로 한 다양한 관광상품이 개발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제주올레 걷기’로 제주의 돌담을 배경으로 산책로를 개발하는 것인데 전국에서 참가자가 몰리는 등 성황을 이루고 있다. 비로소 제주의 돌담이 제대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제주 발담에 대한 제주방문객의 의식조사결과에 따르면, 제주의 발담은 제주도의 이미지로서 감귤, 바다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고, 제주의 발담의 농촌경관예의 도움정도, 발담의 보존필요성, 발담의 경관가치 인식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응답(90%이상)을 보여주고 있다.

제주의 발담은 예로부터 제주도 농가의 입장에서 보면 제주의 환경적 열악함을 지혜롭게 극복하는 열쇠였다고 평가되고 있다. 우선 발담은 돌 많은 토지에 널려진 돌들을 효과적으로 제거, 정리하는 기능을 가졌다. 둘째, 얼기설기 쌓은 제주 발담은 바람에 무너지는

일없이, 효과적으로 풍속(風速)을 줄여 안전한 주거공간을 조성하고, 흙의 유실을 막았다. 셋째, 방목하고 있는 우마가 침입하여 농작물이나 시설물을 훼손하는 것을 막았다. 넷째, 명확한 경계표지 역할을 하므로 토지영역에 대한 분쟁을 줄일 수 있었다.

그러면, 제주의 돌담은 그 길이가 얼마나 될까? 2007년 농림부에서 시행한 농림기술개발사업인 ‘제주도 농촌지역 내 돌담 문화자원의 활용을 위한 농촌경관보전 직불제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제주도 돌담의 총길이는 3만 6,355km, 그 중 발담의 길이는 2만 2,108km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제주도내 6개 지역을 표본으로 조사한 1평방킬로미터 범위내의 평균 돌담 길이인 40.796km를 제주도 총면적과 경지면적을 감안해서 산출된 수치이다. 이러한 길이는 지구의 지름인 1만 2,756km의 3배(돌담), 2배(발담) 정도의 긴 길이이다. 그런데, 예로부터 제주의 돌담의 길이와 관련하여 흑룡만리(黑龍萬里)라고 일컬어 지는데, 이는 실제 길이가 만리(1만리=3,930km)라기 보다는 돌담의 길이가 매우 길다는 표현을 달린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9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필리핀의 코르디레라스 다랭이논(Rice Terraces of the Philippine Cordilleras)의 경우 그 논둑의 길이가 자그마치 지구 반 바퀴에 해당하는 2만2400km에 달한다고 한다. 그런데, 제주의 돌담은 3만7천km로 거의 지구의 한바퀴(4만km)에 가까우니 얼마나 긴 길이인지를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막상 제주돌담(발담)의 경관자원의 가치 평가에 대해서는 ‘아름답다’라는 주관적·심미적 평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필자는 주관적인 수준의 가치평가를 객관적이고도 계량화된 가치로 평가해 볼 수는 없을 것인가? 다시 말하면, 제주돌담의 경우에도 지역에 따라 상대적 아름다움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어떻게 반영시킬 것인가? 그리고 제주돌담의 경관가치를 결정하는 평가요인들은 무엇이며, 이들의 중요도는 각각 어느 정도인가? 등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었고, 이에 대한 하나의 방법론을 개발하였는데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제주도 돌담 전문가들이 제시한 제주 발담이라는 경관자원의 가치평가요소

는 ‘주변조화성(24.8%)’, ‘원형보존성(24.5%)’, ‘밀도·군락(23.2%)’ 등이 큰 차이 없이 1위에서 3위까지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발담형태(14.7%), 조성연대(12.4%) 등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 적용성을 감안해 가치평가요소의 간편화와 가중치를 조정하면, ‘주변조화성(34%)’, ‘원형보존성(34%)’, ‘밀도·군락(32%)’으로 나타났다.

그러면, 제주의 돌담의 구체적인 경관가치의 경제적 규모는 어떻게 될까? 관광객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계량경제학적 기법을 적용하여 추정한 결과, 제주도 발담의 1m당 경관가치에 대한 지불의사금액의 평균은 3,001원으로, 표준편차는 511.0원/m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제주도 총발담의 길이는 22,108km로 나타나, 경관가치 대상여부를 고려하지 않은 연간 제주발담의 경관가치는 평균 663억원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돌담은 최근 연구에도 농촌경관을 구성하는 자원 가운데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경관자원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급속한 도시화와 농업의 몰락, 그에 따른 농업형태의 변화 등으로 제주도 돌담의 훼손이 심각한 상태이다. 한 설문조사결과에서도 제주발담의 보전상태에 대해서 양호하다는 응답은 50% 미만으로 나왔고, 발담의 훼손



제주시 김녕리의 돌담 사진

율이 매년 평균 1.36%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로 나타나 이에 대한 적극적인 보전방안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이러한 돌담은 일단 한번 훼손되면 완전복원이 불가능하고 일부 복원에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원보전과 제주농촌의 돌담 경관관리 측면에서 정책적 개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제주돌담을 보전하는 대책으로는 첫째, 발담의 객관적인 가치추정 결과를 바탕으로 광범위한 제주 발담에 대한 실태조사와 체계적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둘째, 보전을 위한 농촌주민의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주민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직접적 인센티브 지원방식의 직불제 제도를 도입하고, 마지막으로 우수한 제주발담 지역을 대상으로 National Trust(공공신탁) 모델을 도입하여 ‘제주발담 발한평사기 운동’을 시범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대책을 통한 제주농촌지역의 독특한 풍경과 돌담경관의 보전은 국민 전체의 휴양 공간으로서의 기능 증진에도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국내 최고의 관광지로서의 자원을 관리·보전함으로써 문화자원의 다양화에 기여할 것이다.

## 한권의 책

## 현대시를 통한 예술의 깊은 통찰

릴케의 두이노의 다섯 번째 비가(悲歌)는 이렇게 시작된다. “그들은 누구인가, 나에게 말해다오, 그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은, 우리들보다 조금 더 빨리 사라지는 그들은.” ‘두이노 비가’의 비탄은 인간이 사라지고, 소멸하고 이별하는 존재라는 데에서 비롯한다. 그런데 우리들보다 더 빨리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다. 유랑하는 광대들이다. 피카소가 그린, 허허벌판에 서있는 「광대가족(Saltimbanque)」 그림이 제5비가를 쓰는 릴케의 상상력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슈베르트는 친구의 집을 방문했다가 책상 위에 놓인 시집을 우연히 발견한다. 그 시집을 집으로 가지고 가서 읽는다. 그렇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스톨베르그(Stolberg)의 “물위에서 노래함”이라는 시로부터 슈베르트는 참으로 아름다운 가곡을 창조해 낸다. 물결이 춤추는 듯한 시의 리듬을 그대로 선율과 피아노 반주로 살려낸 뿐만 아니라, 사라지는 시간과 물결 위에서 노래하는 영혼의 영원애로의 동경까지도 소리로 표현해 낸다.

장작또는 릴케의 시를 읽는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 지상에서 인간이 만든 모든 연관(聯關)들이 사라지려 한다는 이미지를 보고, 그가 만든 영화 “미녀와 야수”에서, 야수가 사는 오래된 성관의 창문 커튼들이 바람에 날리는 훌륭한 영감을 만들어 낸다. “거울 뒤로 누가 걸어갈 수 있을까?”라는 릴케의 쏘네트의 시행은 “오페우스” 영화에서 거울이 물결처럼 흔들리고 거울 속으로, 죽음의 세계로 걸어가는 시인의 영상으로 나타난다.

예술작품이 만들어지는 신비하고도 깊은 상상력의 창조과정을 말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정신과 정신이 만나서 예술작품이라는 아름다운 불꽃을 만들어 내는 모습은 찬탄할 만하다. 그 예술의 불꽃, 예술의 불꽃 속에서 우리의 삶은 어둠과 공허로부터 보호받는지 모른다. 시와 그림, 시와 음악, 시와 영화, 그리고 시와 무용은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면서 더 아름다운 새로운 세계를 창조해 간다. 이러한 현상과 문제들을 깊이 있게 조명하는 책이 나왔다.



「현대시의 예술수용」

김병택 국어국문학과 교수

우리의 현대시에서 시와 다른 영역의 예술들이 시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시가 그 예술들을 어떻게 수용하는지를 밝히고자 하는 것이 이번 김병택 교수가 펴낸 「현대시의 예술수용」이다. 한국 현대시 비평으로 이미 많은 논저를 펴낸 저자가 이제는 그 시야를 넓혀 다른 예술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놀라운 통찰력을 광범위한 예술 영역을 넘나들면서 펼쳐 보여주고 있다. 시 비평에서 뿐만 아니라, 예술작품연구 분야에서 아직까지 이러한 광범위한 비교예술론이 집필된 것을 나는 본적이 없다. 이 책은 시가 다른 예술을 어떻게 수용하는가의 문제를 넘어서서 예술이란 무엇인가? 라는 근본적인 물음에 답하려는 저자의 숨겨진 의도도 담고 있다.

특히 20세기에 들어 서양의 큐비즘, 미래파, 다다이즘, 초현실주의, 그리고 추상예술과 전위 예술들이 다른 예술영역으로 서로 침투해 들어가는 현상을 목격하면서 기존의 예술형식에 대해 의아해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문학은 시각적 포에지와 언어그림으로, 조형예술에서 언어는 그림형상으로 변화되기도 했다. 마침내 오늘날에는 복합매체예술이라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르렀다. 앞으로 나타날 모든 예술현상들을 이해하고, 예술에 대한 우리의 성찰을 다시 일깨우고, 현재와 미래예술을 예측하고, 예술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히는데 김병택 교수의 「현대시의 예술수용」은 중요한 자극과 계기, 실마리를 우리들에게 줄 것이다.

김종태 독일학과 교수

## ■ 세계인명사전 등재 교수 인터뷰 ■ ② 이남호 화학과 교수

## 제주 천연물화학 연구위한 최적 조건... ‘꿈꾸기 멈추지 말라’

“‘꿈’을 크게 꿔오면 좋겠어요” 교수연구실에서 만난 이남호 교수는 학생들에게 ‘꿈꾸기’를 게을리하지 말 것을 거듭 강조했다. 이 교수에게 ‘꿈’은 공허한 메아리가 아니다. 그에게 대학시절부터 지금까지 걸어온 길은 실상 ‘꿈꾸기’를 지속한 여정이다.

그가 본격적으로 ‘화학’을 공부하는 학자로 ‘꿈’을 꾸기 시작한 20여년전, 학부에서 화학을 전공하고, 대학원 석사를 마친 후 본격적으로 처음 가진 ‘꿈’은 ‘유학’이었다. 유학이 보편화되지 않았던 80년대 미국 아이오와 주립대학에서 시작한 유학생으로서 삶은 언뜻 가시밭길 같은 고된 과정으로 떠올라지지만 정작 본인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절로 꼽는다.

이 교수는 “대학이 위치한 지역은 한국의 강원도 같이 조용하고 한적했다. 방해받지 않고 원없이 공부하며 지냈다”며 “돌아보면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다”고 회고했다.

5년간의 유학시절 끝에 박사학위를 받은 이 교수는 94년 제주대 화학과 교수로 임용되면서 본격적으로 제주와 호흡하게 된다. 제주를 그에게 새로운

‘꿈’을 꾸게 만든 무대였다. 제주에서 그는 삶에 있어서 결정적 변화의 계기를 맞는다. 유학시절까지 매진했던 전공 ‘유기화학’을 ‘천연물화학’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변화의 동력은 다른이던 제주의 청정 자연, 산과 바다에 소위 널려있는 다양한 천연식물은 ‘천연물 화학’을 연구하기 위한 최적의 조건을 이 교수에게 제공했다. 화학의 세부전공 중 하나인 ‘천연물화학’은 지역에서 자생하는 천연식물에서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성분을 찾아내고 분석하는 학문이다.

이 교수는 “94년 이후 7~8년 동안 천연물화학 연구를 다시 시작했다”며 “전공을 변경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제주지역은 천연물화학을 하기에 가장 좋은 지역이다. 충분히 학문의 경쟁력이 있다는 생각에서 바꾸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교수는 “하와이 대학은 화학 분야가 미국에서 상위권은 아니지만 해양천연물 화학분야만 놓고 보면 수준급”이라며 “제주대도 지역환경과 잘 조응할 수 있는 학문을 발전시키면 충분히 상위급 수준의 대학이 될 수 있음을 알

게 됐다”며 전공을 바꾸게 된 배경에 대해 부연설명했다.

이 교수의 천연물화학에 대한 노력의 결실은 제주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바이오산업’ 발전에도 영향을 끼쳤다. 이 교수는 하이테크산업진흥원과 함께 제주에서 자생하는 다양한 식물을 활용한 기능성 화장품 및 의약품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잠재력도 모를 그쳤던 제주의 바이오 및 뷰티산업 발전을 현실화시키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교수는 “제주는 육상에서 5400여종이 넘는 동·식물자원이 있고 해상에도 1100여종의 해양자원을 갖고 있는 바이오산업의 보고”라며 “제주도 자체가 청정산업을 상징하는 하나의 브랜드다. 이런 강력한 브랜드를 살리기 위해서는 바이오산업을 제주의 미래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제주삼다수까지 영역을 넓혀 효능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다. 이 교수는 “명확히 연구를 해야 하지만 제주삼다수가 아토피예방 등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특히 제주 바다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해조류 ‘감태’는 이 교수가 최근 효능연구를 주력하고 있는 소재. 이 교수는 “감태의 주요성분인 해조탄닌과 시놀(SEANOL)은 식용 해조류에서 추출한 순수 천연식품 원료로 다양한 산업적 활용 가능성을 갖고 있다”면서 “해조류를 활용한 신산업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그의 전공이 제주의 2차산업을 육성하는데 일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 아직 타 지역과 비교해 산업적 비중이 미미한 제주의 2차산업의 활로를 ‘바이오산업’이 뚫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이 교수가 자신의 전공을 토대로 꾸준히 제주의 바이오산업의 가능성을 개척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 교수는 “현재 5% 미만에 머물고 있는 제주의 2차산업 비율을 1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며 “2차산업 비중이 높아지면 경제적 효과 뿐만 아니라 지역 인력의 고용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으로 이 교수가 걱정하는 상황은 갈수록 순수학문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



캐리커처=이승남 특별기자

이 줄어드는 것. 취업에 주력하는 학생들 사이에서 순수학문인 화학이 갈수록 외면받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하지만 이 교수는 생각처럼 화학에 대한 미래가 어둡지는 않을 것이라고 자신한다. 이 교수는 “순수학문이 바탕이 돼 응용학문이 빛을 발할 수 있다”며 “화학이 지역사회 산업발전에서 기여를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학생들의 생각도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바탕으로 이 교수는 학생들이 꿈을 잃지 말 것을 거듭 강조했다. 이 교수

는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꿈이 크고 명확해야 한다”며 “갈수록 꿈을 꾸고 도전하기가 어려워지는 시대지만 이럴 수록 꿈은 더욱 크게 꾸어 한다. 나 또한 그랬다”며 학생들에게 건투를 빌었다. 또한 이 교수는 “교수는 연구와 더불어 본연 역할인 교육에 충실해야 한다”며 “제주주는 타 지역에 비해 교수와 학생들의 친밀도가 높은 장점이 있다. 이를 기반으로 학생들의 잠재력을 끌어올릴 교육을 펼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영은 특별기자



〈중소기업인식개선 캠페인〉 현승탁 글로벌 제주상공인대회 대회장

# “100만 제주인 하나 되는 대회 치를 것”

## 도내외 상공인 협력 강화... 제1회 글로벌 제주상공인대회 27일 개막

세계 각지에서 활동 중인 제주 경제인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

“글로벌 제주상공인, 당신이 제주의 힘입니다!”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제1회 글로벌 제주상공인대회(이하 제상대회)가 오는 27일 서귀포 롯데호텔제주에서 개막해 29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펼쳐진다.

전세계 제주 상공인들의 권익을 증진하고 상호 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처음 열리는 이번 대회는 재외 제주출신 상공인과 제주기업인 등 65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제주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략을 모색한다.

특히 일본, 중국, 러시아, 남미 등 국외 상공인 70여명이 참석하고, 서울, 부산 등 도외 경제상공인 180여명이 참석해 제주 경제상공인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상호 경제협력을 위한 만남의 장이 마련된다. 이들은 행사기간 일정을 같이 하며 친교를 다지고 세미나, 포럼, 투자설명회 등 각종 행사에 참석하게 된다.

제주상공회의소는 제상대회 개막일이 10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상의 8개위원회 개최, 다양한 홍보활동 등의 내용으로 짜여진 ‘제상대회 성공 개최 실천계획’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실행에 들어갔다. 제주상의는 세계 각국 제주 상공인들의 권익을 증진하고 상호 협력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참가규모를 650여명으로 확정하고, 고용포럼, 상공인 아고라, 영비즈니스리더포럼 등 세션별 세미나 및 토론회 계획을 수립했다.

글로벌 제주상공인대회 대회장장을 맡은 현승탁(한라산 대표이사) 제주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번 대회가 명실상부한 글로벌 제주 상공인들의 결속의 장이 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고 말했다.

글로벌 제주상공인 대회를 개최하게 된 배경은.

“그동안 제주사회가 일본에 있는 제주출신 교포들로부터 너무나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서도 그에 대해 고맙다는 뜻을 전하는데 소홀했다는 자기 성찰이 있었다. 비록 늦었지만 제주발전의 밑그림을 그리는데 도움을 준 도외 제주출신 인사들을 초청해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게 목적이다. 또한 국제자유도시에 걸맞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제주도민 뿐만 아니라, 국내, 그리고 일본과 미국 등 국외에 있는 모든 제주인들이 좋은 두뇌와 경제력을 합쳐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한 네트워크와 협력체계를 만들고자 한다.

아울러 최근 고용 상황이 상상 이상으로 나쁜 점을 감안, 이번 대회를 통해 제주 출신 상공인간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상호 투자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제주 인재들의 고용창출 효과에 초점을 두고 있다. 고용이 늘어 지역사회가 안정되는 만큼 이번 대회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위

한 실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규모와 내용면에서 만족할 만한 대회가 되고자 행사가 마무리되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대회 준비는 어떤가.

“지난 6월부터 제주지역경제연구센터를 중심으로 이번 대회를 착실히 준비해 왔다. 7월에는 재경 제주경제인과 간담을 가졌으며, 일본 도쿄와 오사카를 차례로 방문하여 일본 동포 사회에 제주상공인대회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그리고 8월부터는 제상대회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9월초 제상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송재호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상대회 조직위원회를 발족시키고 행사장, 숙박시설, 공항 등 주요시설에 대한 점검에 나서는 등 손님맞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개발공사, 제주관광공사 등 관계기관과 수시로 준비 상황 보고회를 갖고 기관 및 부서별 협의사항 등을 논의하고 있다.

행사개최가 임박해지면 개·폐막식이 열리는 행사장과 숙박시설, 주요시설과 부대시설 등에 대해 마무리 점검을 가질 예정이다. ‘세계 속의 제주’로 우뚝 선 제주의 발전상을 이번 글로벌 제주상공인대회에 참여하는 해외동포 경제인들에게 아낌없이 보여 주겠다.”

—글로벌 제상대회가 10일 앞으로 다가온다. 주요 행사를 소개한다면.

“대회 첫날인 27일 오후에는 롯데호텔제주에서 개막식 행사를 갖고 3일간의 행사 일정에 들어간다. 우선 전윤철 전 감사원장과 신용하 이화여대 석좌교수가 ‘글로벌 경제와 제주경제상공인의 역할’에 대해 기조강연을 하며, 환영 리셉션 행사를 갖는다.

둘째 날인 28일에는 제주를 빛낸 경제의 분야 초청인사와 제주경제상공인 스피치, 제주지역 청년취업 기회 확대 및 실업률 해소방안 모색을 위한 고용포럼이 개최된다. 또한 도내의 젊은 상공인 간 교류의 장을 제공하고 제주의 미래경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영비즈니스리더포럼 등이 열린다.

마지막 날인 29일에는 폐막 행사로 ‘2009 기업사랑 전국상공인 골프대회’가 롯데스카일랜드에서 열려 전국 70개 상공회의소 임원 및 도내외 기업인들이 라운딩을 하며 친목을 다진다. 이어 친선 행사로 거문오피트레킹 및 관광지 등을 둘러보는 투어행사도 열린다. 시간이 촉박한 하

지만 앞장대회 행사를 위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다.”

—제주가 국제자유도시, 특별자치도 등 기반은 조성됐지만, 실질적인 외자유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번 대회의 기대효과.

“전세계에 퍼져 있는 재외 제주상공인들이 한 데 힘을 모아 고향을 지원하는 도차원의 ‘재외동포 투자유치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 고향이 잘 살고 못사는 것은 단지 제주도와 도민들의 몫으로만 생각할 수는 없다. 전세계에 퍼져 있는 재외 제주동포들이 단결된 힘을 보여주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전세계 100만 제주인들이 은행이나 장롱 속에 모아둔 돈을 제주에 투자한다면 제주는 엄청난 재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지만 투자하고 싶어도 안전한 투자처와 투자창구를 찾지 못해 포기하는 예가 다반사이다. 때문에 제상대회를 계기로 제주상공회의소가 재외동포들을 위

### 글로벌 제상대회 만반의 준비 ‘한창’ 일본, 중국 등 전세계 6백여명 참가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움

한 안전한 투자유치 창구가 되겠다는 의미도 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앞으로 전세계 제주 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투자유치위원회를 만들어 자치단체와 투자방법을 모색해 나가는 한편 전세계 제주 상공인들과의 유대 강화를 통한 글로벌 투자 확대에 힘쓰겠다.”

—이번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도민들께 한마디.

“글로벌 제주상공인대회는 제주상공회의소가 중심이 되지만 제주상의 행사로만 보지 않는다. 누군가는 먼저 해야 할 일을 늦었지만 상공회의소가 주축이 돼 개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 대회는 지역과 계층, 세대를 망라하여 ‘화합과 상생’이라는 큰 틀 안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글로벌 제주의 기틀을 다짐으로써 후손들의 삶의 기반을 미리 확충해 두자는 뜻도 담겨 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제상대회의 기틀을 다지고 향후 대회를 100만 제주도민이 참여하는 메가 이벤트로 확대하고, 제주의 역량을 강화하는 자리로 발전시키겠다. 도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정용복 대기자



제1회 글로벌 제주상공인 대회 개막일이 1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현승탁 제주상공회의소 회장은 도내외 제주 경제인의 어울림 마당인 글로벌 제주상공인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칠 것이라고 밝혔다.

#### 약 력

1946년	제주시 건입동 출생	2003년	제주상공회의소 부회장
1964년	경희대 경영학과 졸업	2004년	산업포장 수상
1981년	평화통일 정책자문회의 위원	2004년	제주도의회 의장
1992년	한라산 대표이사	2005년	제주도체육회 고문
2003년	대통령 표창	2006년	제주대학교 명예경영학 박사
2003년	제주도문화상 수상	2009년	제주상공회의소 제20대 회장

#### 지면으로 보는 취업특강

## 가치 높이는 ‘맞춤 취업전략’ 중요 ‘준비된 직장인’ 모습 보여줘야

사람들은 왜 직업을 가지려고 하는가? 직업을 가지는 이유는 돈을 버는 경제적 목적뿐만 아니라 적성에 맞는 직업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맘껏 발휘하고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음으로써 자아성취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직업을 통해 다른 사람을 도울 수도 있고 수십 년 내려온 가업을 이어받아 전통을 살릴 수도 있으며 여러 사람과 교류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하지만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 주변에는 수십 번 직업을 바꾸는 사람도 있고 젊은 시절 선택한 직업으로 평생일을 보내는 사람도 있다. 따라서 직업은 삶의 만족도와 행복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며 사회에도 꼭 필요한 일

을 하는 것이므로 귀천이 없고 어떤 직업이든지 모두 소중하다.

제주대학교에서 발행되는 ‘학생생활연구’를 통해 학생들의 취업인식을 살펴보면 첫째, 신입생들의 대학진학 목적은 ‘유망한 직업을 갖기 위해서’(50%), ‘전문적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28.5%) 둘째, 지망학부(과)를 선택하게 된 동기는 ‘자신의 적성’(30.5%), ‘취업전망’(17.8%) 셋째, 사회에서의 성공요인은 ‘실력 및 능력’(47.9%), ‘노력’(21.8%)의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제주대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 상당수는 “자신의 적성에 맞거나 취업전망이 좋은 학부(과)”라고 여러 선택하였고, 학교생활에 있어 전공과목을 열심히 공부하

여 실력과 능력을 길러서 졸업 후 유망한 직업을 갖기 위함”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올해의 제주대학교 졸업자수 2,204명 중에 취업자수 1,174명(53.4%), 미취업자수 870명(42.6%)이고, 미취업자수 870명에 대한 이유를 보면, ‘국가고시준비 252명’(29.5%), ‘취업준비 500명’(58.6%)이다. 이는 처음 제주대학교를 진학한 목적이 ‘유망한 직업을 갖기 위함’(50%)라는 취업인식 속에서 준비되지 않은 졸업을 맞이한 결과 성공적인 취업을 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성공적인 취업전략은 무엇인가? 높은 스펙을 기르고, 구직서류를 잘 만들고, 취업네트워크를 잘 이용하는 등 여러 취업전략이 있다. 하지만 이번

지면을 통해 말하고 싶은 것은, “자신의 가치를 상승시키자”라는 것이다.

내 가치는 무엇일까? 혹은 나의 가치는 얼마일까? 무엇이 내 적성에 맞을까?

기업에서는 높은 스펙을 요구하고 있다. 기업체마다 기준은 다양하지만, TOEIC 800점 이상, 학점 3.5점 이상, 어학연수 1년, 인턴 및 아르바이트의 다양한 사회경험 등이 좋은 인재로 찾기 위한 평가 기준으로 되는 현실이다. 하지만 기업입장에서 ‘인성검사’ 및 여러 단계를 거치는 ‘면접’을 통해서 지원자의 가치를 찾으려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은 나 자신의 가치를 높임에 있어 스펙에만 치우친 값어치를 높이는 것에 열심이고 그것이 내게 평가되어지는 가치인 것

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물론 현실적 상황 속에서 기업이 바라는 인재상의 조건에 들어가기 위한 스펙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결코 아니다. 다만, 그 스펙을 준비하는 마인드에 있어 자신의 강점과 차별성 및 독창성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가운데 자신의 사명을 세우고, 자신의 가치를 높여서 기업의 비전에 win-win 할 수 있고,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에 적합함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취업을 준비함에 있어 꿈과 목표가 분명해야 하고, 목적의식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도전하는 인재가 될 때 그 가치는 삶에 있어 존중받을 수 있고, 내 값어치가 가치로 인식되어져 기업이 원하고 세상이 원하는 준비된 인재가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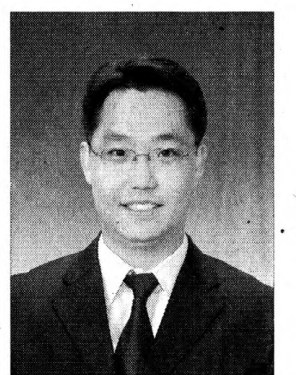
힘들게 기업체에 입사하여 1년 내에 퇴사하는 비율이 평균 30%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대기업이나 외국계 기업에서의 조기 퇴사율은 20% 안팎이고, 공기업에서는 7%내 정도의 조기 퇴사율을 보인다. 신입사원 퇴사 사유로 ‘직무가 적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라는 부분이 30% 정도로 가장 높게 나온다. 이는 대학생활과 취업준비 시기에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 부족과 삶의 목적의식이 낮기 때문에 직장생활을 잘 적응하지 못하고 조기 퇴직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많은 학생들은 오늘날도 유명한 원어민 강사가 교육하는 영어학원에 다니

고, 높은 학점을 받기 위해 밤늦은 시간까지 전공과목에 힘쓰고 있다.

연수를 통해 글로벌 인재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인턴으로 지원하여 실제적인 현장경험을 쌓아 기업의 맞춤형 인재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은 구직서류를 작성하는 가운데 한 줄의 경력사항으로 기재되어 진다.

기업에서는 원하는 인재상이 있다. ‘변화를 만드는 창의적인 인재, 긍정적인 사고와 열정을 가진 인재, 조직의 목표와 일치하는 인재 등’ 이러한 인재가 되기 위해서 오늘날도 제주대학교 학생들은 높은 스펙을 위한 준비와 자신의 가치를 찾으려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그 꿈을 향해 도전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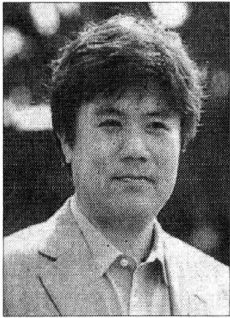
박진배

직업능력개발원 취업컨설턴트



무론유설

# 위기를 넘은 비결은 '지식점프'



현정석 경영정보학 교수

남들과 똑같은 생각으로 경쟁우위를 갖기는 어렵다. 남과 다른 상상력을 가지려면 지식 점프를 경험해야 한다. 지식 점프는 기존 지식과 전혀 관련 없던 지식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새로운 개념으로 탄생하는 순간 발생한다. 망치와 못, 연필과 종이 같은 익숙한 생각의 연결이 아니라 지금까지 전혀 관계가 없던 낯선 생각이 서로 연결을 이룰 때 지식 점프가 생긴다. 아르키메데스는 그의 왕 히어론 1세로부터 왕관이 금금으로 되어 있는지 여부를 알아내라는 명령

을 받고 고민에 빠졌다. 어떻게 금관을 녹이지도 않고 순금인지 알 수 있단 말인가. 고민에 빠진 아르키메데스는 어느날 목욕탕에 갔다. 머릿속은 왕관 문제로 꽉 차 있었다. 그는 욕조에 들어가면서 몸이 물속에 잠긴 부피만큼 물이 흘러넘치는 것을 보았다. 바로 그 순간 부력의 원리를 깨달았다. 왕관의 순금 여부와 목욕탕의 물에 대한 연상이 물입의 끝 순간에 튀어 나왔다.

다이너마이트와 남성의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는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인다. 이에 대한 통념을 깨뜨린 공로로 루이스 이그네로가 1998년에 노벨의학상을 받았다. 그는 한 여학생으로부터 왜 니트로글리세린이 심장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지 질문 받았다. 아무런 대답을 못한 그가 이 문제에 달려들었다.

1870년대 당시 노벨의 다이너마이트 공장 근로자 중에는 심장병을 앓는 사람도 있었다. 심장병 환자들이 다이너마이트 공장에서 일하면 병이 나왔다. 의사들은 왜

다이너마이트가 심장병에 효과가 있는 이유를 몰랐지만, 다이너마이트의 원료인 니트로글리세린을 심장병 환자에게 처방했다. 이그네로는 오랜 연구 끝에 니트로글리세린에 있는 일산화질소의 작용을 알아냈다. 일산화질소가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낮추는 효과를 전달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비아그라 제품이 탄생했다.

정밀 기계조립에 강했던 스위스의 시계는 1970년대에 세계 시장의 65%를 차지했다. 1979년~1982년 사이에 시장점유율이 10%로 폭 떨어졌. 6만5천명이었던 고용 인원을 1만5천명으로 줄여야 했다. 일본 시계회사들이 전자기술과 플라스틱 케이스를 이용하여 값싼 전자시계를 출시했기 때문이었다.

스위스 시계회사는 새로운 방향을 잡아야 했다. 스위스 시계회사는 시계 산업을 패션 디자인으로 바꿔 정의했다. 스위스 시계회사는 부족한 패션지식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수입했다. 플라스틱

사출 기술은 덴마크 장난감 회사인 레고와 제휴를 맺어 해결했다. 그 결과 나온 것이 스와치였다.

애플 컴퓨터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는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상상력을 가진 이유를 남과 다른 경험 때문이라고 말하였다. 스티브 잡스는 대학시절 현대무용 수업을 들었다. 무용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서가 아니라 단지 여교수를 보기 위해 수업을 신청했다.

1985년 애플 컴퓨터에서 쫓겨난 스티브 잡스는 픽사를 인수하여 최초의 3차원 애니메이션 영화를 만들었다. 그는 무용 수업에서 배웠던 미세한 움직임과 그에 대한 감각을 비디오 제작에 적용했다. 그가 만든 토이 스토리가 3억5천만 달러 흥행수익을 올렸다.

나트륨과 염소는 유독물질이지만 하나로 합쳐지면 정전기현상이 일어나 사람에게 꼭 필요한 소금으로 바뀐다. 생각을 연결시키면 "유레카!(깨달았다)" 하고 지식 점프 현상을 경험할 수 있다.

돌하르방

## 새 총학생회 당선자에 거는 기대

지난 학생회 선거과정을 보며 학생회의 역할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학생회 출마자들에게 일반적으로 던져지는 이러한 물음은 생각보다 간단치 않다.

1980년대 대학 학생회는 사회변혁의 선두였다. 당시대의 학생회는 사회문제를 풀어야 할 지식인들 자체가 바로 대학생들이라고 생각했다.

올바른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군부정권에 맞서 투쟁하기도 했으며, 소외된 계층인 노동자를 위한 노력, 지역사회의 문제에도 꾸준히 목소리를 냈다.

학생회 자체가 부조리한 사회의 내적 모순들을 일목요연하게 지적하고 해결해 나가는 역할을 맡아왔던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우리 학생회는 어느 지점을 밟아 가고 있을까. 지난 시절보다 상당부분 보수화됐다는 의견들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 됐다.

전직인 예로 지난 3월 중앙운영위원회 주최한 1차 총학생회 정책토론회가 있던 날, 보수화된 시각은 여지없이 드러났다.

본지 기자가 토론회의 패널로 요청을 받아 참석한 자리에서 지역사회의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문제에 어떠한 자세로 참여할 지를 묻는 질문 덕분에, 대의원의장이 대학신문사를 직접 찾아와 주었다.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묻어난 질문이 아니었느냐는 추궁과 함께, 그로 인해 패널 자격도 정지하겠다고 통보했다.

이러한 사례 외에도, 학생회의 공약들에서도 점점 심화되는 보수성향도 나타난다. 절반이 넘는 학생회 복지공약들은 학생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와 본질이 무엇인지 학생들에게 되려 혼란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다사다난했던 지난해 동안, 지역사회에 제주를 대표하

는 제주대학교 학생회가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들도 많다. 학생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복지공약들을 내세우는 것도 좋지만, 그 정도가 너무 표심을 향해 대중화, 상업화 된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치열한 선거운동이 끝난 어제, 2010년도를 이끌어갈 어디 총학생회가 사회문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주목된다. 학생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와 정의, 그리고 신념들을 출발점에 선 지금부터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박준건 편집장

독자기고

### 학생 소리 귀기울여야



허별 독일학과 1

제주대학교 캠퍼스는 한라산과 어우러져 자연적인 아름다움을 자랑한다. 제주대학만의 자연을 느낄 수 있는 묘미가 있지만 캠퍼스의 넓이가 어마어마해서 걸어서 다니기에는 조금 버겁다. 교양강의동, 각 단과대학, 외국어교육관, 중앙도서관 등... 학생들은 각각 넓게 퍼져있는 건물들을 옮겨다니느라 바쁘다. 이에 넓은 캠퍼스를 걸어 다니는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순환버스가 운영되고 있다. 순환버스가 있어서 자동차가 없는 사람도 편하게 캠퍼스를 오가고 있다.

하지만 이런 편리한 순환버스가 조금 더 세심한 배려를 해주다면 어떨까? 10분마다 학교 각각의 건물에 순환버스가 돌고 있지만, 자신이 서 있는 건물에 언제 버스가

정차하는지는 알 수 없다. 비가 올 때에나 수업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언제 올지도 모르는' 순환버스를 기다리며 속이 탔던 경험은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것이다. 더군다나 시간을 확인하고 미리 기다릴 수도 없어 코앞에서 순환버스를 놓치기가 심상이다.

정류장마다 벤치라도 설치된다면 순환버스를 놓쳐서 오래 기다려야 하는 학생들의 불편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순환버스가 학교 밖에서부터 운행이 시작된다면 어떨까? 등교시간의 교통 체증을 해소하고 학생들의 차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산에 몇몇 대학교에서는 이미 운영되고 있다. 각각의 대학 버스는 대학 근처 시내로 나와서 그 학교 학생들을 태우고 학교로 향한다. 우리대학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학생들의 차비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대내외적으로 제주대에 대한 인식이 한층 더 좋아질 것이다.

순환버스 문제 외에도 캠퍼스 안에서 생기는 사소한 문제점들이 많다. 작은 것부터 하나씩 귀기울여 간다면 캠퍼스는 구성원들의 만족으로 풍요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 작은 것도 세심하게 배려하는 제주대 캠퍼스의 변화를 기대해 본다.

독자기고

### 열린 자세 요구되는 사회복지



강하늘 가정관리학과 3

벌써 제주대학교의 학생이 된지 1년이 다 되어가고 있다. 편입생인 나는 1년동안 넓은 캠퍼스를 구경하고 자율적인 시간표도 짜며 많은 것을 경험했다. 시간표를 짜는동안 사회복지분야가 아주 인기있는 과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학생들이 사회복지에 전호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미래의 전망성 때문이다.

사회복지의 전망성을 내다볼 때, 이제 곧 사회는 3차 서비스 직종에서 복지직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전망으로 많은 학생들이 사회복지에 수강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를 꿈꾸고 있다. 하지만 과연 우리가 사회복지의 마인드를 습득하고 비전을 키우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저 수강만하면 2급자격증이 나

오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슬퍼서, 전망이있어서 라는 이유로 사회복지사를 택하지는 않았는지 말이다.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부모님을 도와 주말과 방학동안 일하곤 하는데, 방학때마다 실습을 하러오는 학생들을 보면 과연 사회복지사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실습 중문자를 하고, 지각을 하고, 대상자를 받아들이지 못해(협오감 등) 그만두는 학생들이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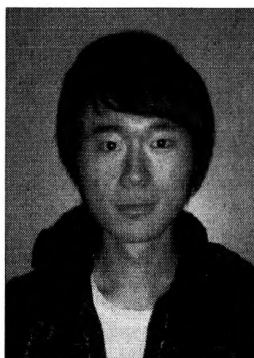
사회복지사는 수혜자(Cx)가 사회적, 신체적, 정신적, 영혼적까지 편안하고 안락한 상태가 되도록 원조해야 하는데 이러한 자세없이 그저 전망만을 보고 덤벼들었다가는 오히려 수혜자인 노인, 여성, 장애인, 아동들에게 두번 상처를 입힐 수 있다.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있는 많은 학생들이 이번 방학실습을 통하여 자신에게 정말 복지적인 마인드가 있는지를 되돌아보고, 냉철한 머리와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을 수용할 자세를 기웠으면 좋겠다.

그리하여 우리 학생들로 인해 적게는 지역복지가, 넓게는 국가적인 사회복지가 발전되기를 바란다.

독자기고

### 속에 품고 있는 단어는 무엇?



김승남 생명공학부3

우리가 처음 배우는 단어는 엄마 혹은 아빠일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어린아이 때부터 자연스럽게 단어를 배워나가기 된다. 사람은 먼저 눈으로 확인한 것을 단어로 기억한다.

밤하늘 높이 반짝이는 점은 우리나라에서는 별이라고 부르고 또 다른 나라에서는 star라고 부르기도 한다. 각 나라마다 똑같은 모습을 바라본다고 해도 소리가 다르기에, 어디를 가

든 그 나라에 맞는 단어로 말하면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단어는 의사소통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각각 가지는 느낌이 있다. 아기를 보면 귀여움이라는 단어가 떠오르고, 친한 친구를 보면 우정이라는 단어가, 좋아하는 사람을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자연스레 떠오를 것이다.

이처럼 사람들을 보고 떠오르는 단어들은 자신을 나타내주는 또 하나의 단어가 된다. 자신이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에 따라 자신을 표현할 수 있게 된다. 자신이 어떤 단어를 가지고 있는나 그에 맞는 행동을 유도하는 것이다.

돈, 능력, 스펙, 좋은 직업과 같은 단어들은 흔히 사회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단어들이다. 스펙을 쌓으면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고 좋은 직장은 곧 사람의 능력을 나타내고 능력

현신하는 대학 근본 자세의 확립 등이 그 내용의 핵심에 있음을 확인한다. 일상적인 대학이 되기 위해서는 그 중심이 필요하고, 그 중심에 따라 순리적인 파동이 일어날 수 있어야 한다. 연구와 교육 또한 한 곳에 그 역량을 모아 줄 때라야만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다면 대학운영의 중심을 구성하는 총장이 빠른 시일 내로 선출돼야 할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총장선거일이 잡혀져 있다. 더 이상 시시비비를 따져서는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대학의 중심을 결정짓기 위한 우선 순위이기 때문이다. 많은 대학 구성원들이 바라는 일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우선 순위를 매겼고 다음 순위를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이제 표류를 멈출 때가 다가온 것 같다. 지금까지 우여곡절이던 서로의 가슴을 헤아리기에 충분할라라 짐작된다. 서로를 보듬어 주고 냉철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이다. 차가운 이성적 눈으로 세상과 맞서야 하지만 따뜻한 감성을 가진 제주대 학 구성원으로서 서로에게 힘과 믿음을 줘야 한다. 그래서 우리대학의 미래를 향해 산적한 과제를 하루 빨리 해결 나가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다가오는 선거에서는 정정당당하고 치열하게 승부를 하자. 모든 것을 공개하고 정책으로 이야기해야 한다. 이는 후보자들보다 대학 구성원들의 의식 전환의 문제이기도 하다. 철저한 비교 분석을 통해 현 시점에서 우리대학의 나아갈 길을 더욱 확고히 해줄 그러한 후보가 뽑히도록 해야 한다. 후보들은 선거 기간 중에 치열한 노력을 해야 한다. 치열한 선거전을 치르고 난 뒤 실패한 후보가 승리자에게 축하의 웃음과 꽃다발을 보내는 것은 절대적 미덕이 돼야만 한다. 12월의 어느 날, 모든 대학 구성원들이 어우러지는 그런 축제를 만들어 보자.

#### 독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독자 여러분들이 직접 쓴 글을 여론면에 게재하고, 독자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학교에 바라는 점이나 제주대신문을 읽고 난 후 느낀점 등 다양한 주제의 글을 보내주시면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 이름, 학과 및 계좌번호를 꼭 기입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 754-2279, press@jejuun.ac.kr  
홈페이지 http://www.cnuexpress.com



■ 2009년 동아리를 말하다

# 시대변화로 동아리 선택 양극화

## 취업 활동만 쫓다 청춘 삭을라

대학생활의 꽃이라고 불리는 동아리는 '같은 뜻을 가지고 모여 한패를 이룬 무리'라는 뜻이다. 같은 목적으로 모였기 때문에 동아리로 묶인 선배 사이에서 정과 의리는 지금까지 돈독하게 이어지고 있다. 시대가 변화에 따라 동아리도 변화를 거듭했다. 동아리 문화의 시대별 흐름을 되짚어 보며 그 변화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자.

제주대 동아리의 역사는 61년 대학생 성경읽기(U.B.F)가 창립되면서 시작됐다. 64년 제주도문제연구회와 칼리오페가 등장하며 지속적으로 동아리 수가 늘어났다. 동아리 통계연보에 따르면 2009학년도 4월 현재 등록된 동아리는 총 61개(참여 학생 수 약 2천여 명)로 전시 창작, 공연예술, 체육, 교양봉사, 학술, 종교 등의 분야로 다양하게 구성됐다.

일명 서클(circle)이라고도 불리는 동아리는 8·90년대 활발한 움직임이 많았다고 한다. 동아리는 80년대 말 '우리 것을 찾자'는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며, 서클 대신 동아리라는 우리말을 갖게 됐다. 70년대부터 시작된 민주화운동으로 인해 80년대의 동아리활동은 민주화를 위한 학생운동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70년대의 동아리-민주화 움직임의 개어있는 학생운동도임

70년대 동아리는 비민주적인 사회와 억압받는 사람들, 역사와 민족에 관심을 갖고 사회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의 활동을 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 암울한 시대 상황 속에서도 동아리는 다양한 정치적 성격의 활동을 이어갔다. 대학이라는 공간속에서 개인주의나 이기주의로 빠지기보다 동아리를 통해 정치적 자유를 찾기 위해 노력한 것이다.

▲80년대의 동아리-혼란의 시기

80년대, 정권이 바뀌면서 동아리의 연합체 성격을 가진 서클연합회가 결성됐다. 당시 전두환 정권은 3S(screen, sport, sex)정책에 따라서 영화, 운동, 성으로 대중의 관심을 정치로부터 벗어나게 했다. 3S정책으로 인해 사회는 정치적 투쟁에 대한 힘이 분산됐다. 사회에

문제의식을 느낀 동아리는 서클의 명칭을 우리말인 동아리로 바꿔 본연의 역할을 지속했다. 이는 서클이라는 용어가 정치색으로 왜곡될 우려가 있어 정권과 위치를 다르게 하고, 순수함을 이어나가기 위한 의도로 해석되고 있다.

### ▲90년대의 동아리 - 침체기

90년대 이후 사회는 문화가 다양해지고 각자의 개성이 중요시됨에 따라 과거에 비해 동아리도 7·80년대와 달리 조금 다른 목적으로 나아간다. 하지만 신입 회원이 줄어드는 것과 함께 동아리 활동도 위축된다. 대중문화와 경계가 모호해진 대학문화는 개인위주로 성격이 변하며,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동아리는 외면당하게 된다. 하지만 학생들이 어딘가 소속되기 싫어하는 경향도 나타나기 시작한다.

### 61년 'UBF' 첫 동아리 탄생

### 64개 2천여명 동아리 활동

### 봉사·취업 등 내용도 다양화

### ▲현재의 동아리-사회속에서 사라져가는 대학문화의 꽃

경제침체에 따른 실업률의 증가로 대학은 취업준비기관으로 바뀌고 있다. 취업을 하기 위해서 대학생 때부터 준비해야 한다는 학생들의 압박감 때문에 순수한 관심과 취미의 대상이었던 동아리 활동은 점점 위축되며 동아리도 취업성격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현재 동아리들은 학술분과, 종교분과 등의 분야는 줄고, 영어실력을 늘리거나 자격증, 인턴 등 실무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취업동아리가 인기가 있다.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듯 취업이 어려워져 학술, 종교, 봉사 관련 동아리는 물론 현재 동아리들은 위기에 처해 있다. '프렌치드림'이라는 마술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고유리(생물산업학부 1)씨는 "마술도 배우고 인맥도 넓히기 위해 동아리에 들었지만 막상 동아리에서 함께 활동하는 학생들은 거의 없는 편이

다"며 "사회가 취업난으로 인해 학생들은 취미활동이 줄어들고 자격증따기 등 취업준비에 바빠 동아리도 취업준비수단으로 바뀌고 있어 아쉽다"고 말했다.

80년대 당시 '제주도문제연구회'라는 동아리에서 활동했던 김유주(물리학과)교수는 취업추세에 따른 동아리의 침체를 아쉬워하며 과거 분위기를 설명했다. 김교수는 "박정희정권 당시 유신시대가 시작되며, 동아리를 위한 행사들은 거의 할 수 없었다"며 "대신 동아리사람들끼리 민주화나 도내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지금처럼 동아리가 다양하지 못하고 제주대는 농과대와 해양대가 서귀포로 분리돼 학생들이 자주 모여 동아리활동을 활발하게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당시 동아리는 취미, 봉사, 농활 등 취업에 대한 성격은 없었고, 영어타이틀을 통해 공부하는 스터디그룹은 있었다"며 "캠퍼스가 분리됐기 때문에 학내보다 다방에 모여 앉아 공부를 하고 낭만적인 얘기도 많이 나왔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동아리가 과거보다 순수하지 못하고 학생들이 자신의 이득을 찾아 동아리에 가입한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과거는 대학만 졸업해도 취업을 쉽게 할 수 있었다. 현재는 대학 수는 많지만 일자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사회가 취업난에 빠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추세다. 그만큼 학생들이 대학생활을 나누는 것 또한 부족하다"며 "동아리회장과 연합들이 적극적인 홍보와 헌신을 통해 동아리가 취업 외에도 또 다른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는 감정을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문화의 꽃 동아리는 개인생활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함께 어울리고 우리라는 공동체와 소속감을 느끼게 해주면서 대학문화를 만드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 동아리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하며, 동아리를 시대변화에 맞게 발전시킬 수 있는 학생들의 보다 개어있는 의식이 필요한 시기다.

김도연 기자

## 상업성에 내몰린 매달 14일 '△△데이'

데이문화 대신 다양한 축제의 장을



일러스트=허승 특별기자

사랑하는 연인사이에 기념일 챙기는 서로의 마음을 표현하는 또 다른 애정표현이다. 이제 각종 기념일은 연인 사이에 꼭 챙겨야 하는 필수 아이템이 됐다. 그 중에서도 한달에 한번씩 있는 14일 소위 '데이문화'는 연인들에게는 넘어갈 수 없는 기념일 중 하나다.

데이문화는 종류만큼 의미도 각각 색이다. 1월 14일은 새해를 맞아 서로에게 다이어리를 선물하는 다이어리데이(Diary day), 2월 14일은 연인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초콜릿으로 사랑고백을 하는 발렌타인데이(Saint Valentine's day), 3월 14일은 남자가 여자에게 사랑으로 사랑고백을 하는 화이트데이(White day)다. 그 외에도 자장면을 먹는 블랙데이(4/14)를 포함해 로즈데이(5/14), 키스데이(6/14), 실버데이(7/14), 그린데이(8/14), 포토데이(9/14), 와인데이(10/14), 무비데이(11/14), 허그데이(12/14)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11월 11일 배배로데이까지, 일일이 챙기고 기억하기 위해서는 꽤 용량이 필요할 만큼 많은 데이들이 있다.

가족의 생일이나 결혼기념일도 챙기기 버거운 기성세대와는 달리 오늘날 젊은 세대는 서로의 사랑을 다양한 기념일을 통해 드러내고 확인하기를 원한다.

우리나라 데이문화는 1980년대 중반 일본에서 유입된 '발렌타인데이'로부터 시작됐다. 발렌타인데이는 로마의 발렌타인 신부가 순교한 날을 기념한 것에서 유래되었는데

일본의 한 과자회사가 초콜릿을 많이 팔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만든 날이다. 이를 시작으로 상업적 목적에 의해 만들어진 데이들이 갖가지 이름으로 포장되고 젊은 세대를 공략해 14일마다 젊은이들의 주머니를 털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젊은 세대가 이러한 데이문화의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박나라(관광경영 1)씨는 "상업적임을 알기 때문에 서로 안 챙겨 주기로 약속을 하면서도 막상 남자친구가 챙겨주게 되면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에 챙겨주게 된다"며 "아무래도 서로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날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날들을 통해 챙겨주게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렇게 매년 데이 시즌이 다가올 때면 각종 언론과 시민단체에서는 데이문화의 상업성을 문제로 꼬집으면서 여러 대안을 제시한다. '한국대학생 대중문화감시단'에서는 발렌타인데이를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날로 정하거나, 불우한 이웃을 한 번쯤 돌아보자는 뜻깊은 날인 '캔들데이'를 만들어 초콜릿 선물을 대안문화들을 제시했다.

또한 우리나라 고유의 풍습 중에서도 연인들의 기념일이 될 만한 날도 많다. 우리 고유의 명절을 자세히 알아보면 칠월칠석이나 쥐불놀이, 달맞이 등을 현대식으로 개발해 서구의 발렌타인데이보다 더 나은 기념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소재가 많다.

문정화 기자

영화, 세상을 만나다(3) - 2009년 <디스트릭트9>

## 엄혹한 자본주의의 빈곤한 풍경

### 지구종말을 상상력과 냉소적인 시선으로 빚어

최근 개봉한 영화 중 대학생들에게 한편 추천하라고 하면 단연 <디스트릭트9>를 꼽겠다. 극장에서 막을 내렸지만 모든 학생들이 있다면 웹하드를 뒤져서라도 꼭 보길 바란다. 대체 어느 행성에서 날아왔을까 궁금한 이 영화는 도처에 많은 매력을 포진하고 관객들을 만난다.

매력은 시간 죽이기에 급급한 '팝콘용 영화'가 주는 그것과 차원이 다르다. 현대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논쟁점들이 다중적으로 배치돼 있다. 영화 재미와 더불어 현 시대를 이해할 수 있는 진지한 토론의 장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영화를 통해 엄혹한 자본주의의 상황하에서 앞으로 자신이 선택해야 할 행동방향을 고민하는 지점도 만날 수 있다. <디스트릭트9>의 두건을 슬며시 열어본다.

#### 모큐멘터리의 효과적 활용

이 영화는 '모큐멘터리(mockumentary)' 형식으로 만들어졌다. 다큐멘터리와 같은 형식을 하고 있지만 사실이 아닌 허구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페이크 다큐멘터리(Fake Documentary)다. 영화의 많은 부분은 CCTV처럼 보이게 찍혔고, 남아프리카 공화

국 방송사와 실제 통신사에서 제공받은 실제 뉴스 화면도 허구지만 '실제'처럼 보인다.

영화는 베일에 둘러싸인 '실제사건'의 기록물인 듯 보이지만 사실 허구임을 은밀히 고백한다. 그동안 SF가 허구를 통해 시대를 비판하는 장르로 위치해왔던, <디스트릭트9>은 다큐멘터리 장르를 영리하게 활용해 한발 더 직접적으로 현실에 개입했다는 측면에서 기존 SF 장르에서 진일보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뉴스화면, CCTV, 디지털캠코더 등 다양한 미디어에서 배출된 화면을 이어붙여서 만든 <디스트릭트9>은 미술의 '콜라주' 기법을 떠올리게 한다. 하나의 영화 속에서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서로 다른 형식, 색깔의 이미지 몽타주(montage, 한 화면과 다른 화면을 연결하여 감정, 의지 또는 사상의 흐름을 나타내는 한개의 필름으로 구성하는 방법)는 사회의 부조리를 냉소적으로 관찰하게 하는 효과를 안긴다. 관객들이 객관적이고 솔직한 시선에서 영화를 보게끔 만든 것이다. 이는 단순히 허구적인 SF영화로 보지 말아달라는 감독의 강조성 발언이다. 곧 <디스트릭트9>에는 허구를 넘어 실제 현실

을 드러내고자 하는 감독의 의도가 새겨져 있는 것이다.

영화 속 재밌는 장면, 외계인들이 "3년 뒤에 돌아오겠다"라고 말하는 장면은 마치 지구종말을 예언하는 듯 보인다. 3년후엔 소위 지구종말론이 제기되는 '2012년'이다. 영화는 지구가 종말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실제'처럼 말하고 있다. 돌아온 외계인과 지구 사이에 전쟁이 벌어져 지구의 종말을 맞을 수밖에 없는 시나리오다. 그래서 이 영화에서 쓴 모큐멘터리가 더 돋보이는 것은 마치 영화가 지구종말의 전모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기록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3년 뒤에 외계인들의 전쟁으로 지구가 멸망한다면 영화는 아마 외계인들이 침입하게 된 경위를 가장 상세히 설명한 다큐멘터리이자 기록물이 될 것이다. 물론 현실일 가능성은 없겠지만 <디스트릭트9>은 지구종말론을 다른 상상으로 예견하고, 마치 현실처럼 여기는 예견적 영화로 만들으로써 지구종말을 뻔하게 다른 영화들과 차원을 달리한다.

#### 자본주의의 빈곤한 풍경

<디스트릭트9>은 현재 지구에서 벌어지는 자본주의의 작동시스템과 서구사회가 난민들을 의도적으로 차별하고 다스리는 폐해를 여실히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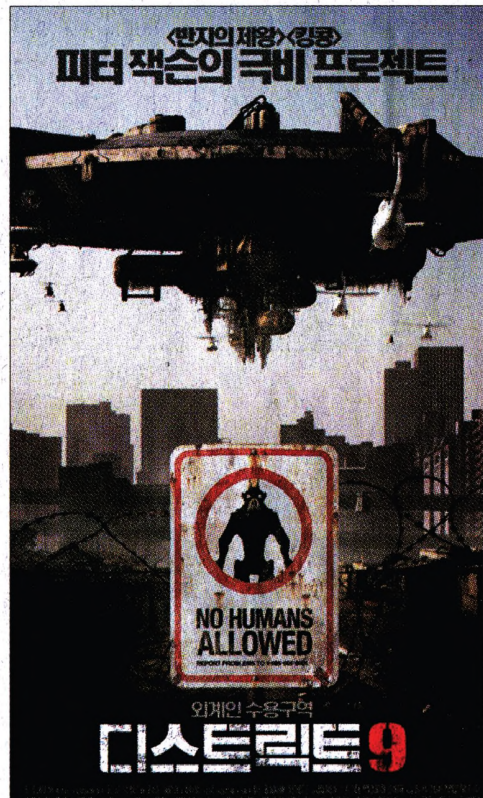
영화 속 외계인들은 국가와 민족을 잃은 '난민'처럼 그려진다. 인도적 차원에서 보호한다고 하나 사실상 방치된다. 자본주의 작동시스템 안에서 가장 밑바닥인 천민의 존재로 살아간다. 영화 속에서 사람들이 외계인들을 비하하며 '프런(쓰레기를 뒤지는 벌레)'이라고 부르는 장면이 대표적이다.

지구에서 실제 난민들도 외계인이다.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들은 영토 구석으로 내몰리고, 자본주의 시스템 최하층에서 소외받는다. 시스템에 의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경제적 능력의 저하는 곧 난민들을 거지로 취급하는 사회적 문화양상으로 드러난다.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면 당사 추방당해야 할 존재다.

그렇더라도 외계인(난민)들을 말살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이유는 그들이 자본주의 시스템을 돌아가게 하는 동력의 한 축이 되기 때문이다(마치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처럼). 영화 속 외계인들은 침체된 세계 자본주의를 돌파할 수 있는 실험대상이 된다. 인류가 외계인이 지닌 무기를 소유하고, '세계화'하려는 전략은 외계인을 주체가 아니라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생산력을 높이는 수단으로 둔갑시킨다.

<디스트릭트9>은 UFO가 지구 상공에 머물러 있는 풍경이 중요하다. 정적인 풍경 속에는 이질적 종족과 교류, 새로운 동력원의 출현, 새로운 테크놀로지와 교배가 활발한 흐름으로 진행된다.

결국 영화는 인간의 선택이 중요해지는데 왜곡된 선택을 통한 결과는 지구가 멸망할 수 밖



영화 <디스트릭트9> 포스터

에 없는 이유가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내부에 있음을 지시한다. 인간 스스로 멸망의 길로 향하고 있으며, 내부에서 끊은 시스템의 모순을 방치한 결과가 지구를 종말시킬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그 시선은 곧 내부자가 아닌 외부자 외계인의 것이다. 역시 또 다른 외부자인 관객들의 시선도 첨가된다. 외부자들의 선택은 무엇인가. 지구의 멸망을 향하는가, 재생을 향하는가.

이영운 특별기자